

평화번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모색 -

지도교수 고 성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이 창 화

이창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평화번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모색-

이 창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최근 미국의 9·11 테러, 이라크-미국간 전쟁 등은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켰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보듯, 우리의 통일문제 또한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화해와 협력을 거쳐 통일로 가는 도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등장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는 평화에 더 강조점을 두는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걸맞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를 짚어보고, 현행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에서 실시되어온 평화교육의 사례를 모아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실제적인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기본방향(교육 목표와 내용),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등이다.

초등학교 평화교육의 기본방향은 평화에 관한 인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평화사랑의 마음과 실천의지를 키워주는 정의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은 교과를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재량활동, 실천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초등학교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보다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II.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변영정책	6
1. 평화변영정책의 배경	6
2. 평화변영정책의 주요내용	16
3. 평화변영정책의 실천과제	22
III. 평화변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26
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26
2. 현행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검토	31
3. 평화변영정책에 걸맞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으로의 지향	44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방안	50
1.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 검토	50
2.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방향	62
3.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70
V. 결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9

표 목 차

<표-1>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18
<표-2> 교육이념과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30
<표-3> 제 7차 교육과정 영역별 통일 교육 목표	33
<표-4> 국민 공통 기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34
<표-5> 제 7차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35
<표-6>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36
<표-7>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	37
<표-8> 제 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편제 시간 수	37
<표-9>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39
<표-10>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51
<표-11>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의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요	53
<표-12> 초·중·고생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괄	53
<표-13> ‘겨레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민족화해캠프’ 교육 내용	55
<표-14> 평화교육의 제 범주	66
<표-15> 통일교육이 다루어야 할 평화교육의 학습목표	73
<표-16> 미술과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내용	79
<표-17>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1	84
<표-18>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2	87
<표-19>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3	88
<표-20>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4	90
<표-21>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5	9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남북한의 만남은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다.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남북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상황과 경험에 대한 준비이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려갈 사회구성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비중 있게 다뤄 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비평화적 요소인 분단의 극복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통일 지향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시점이라고 하겠다.

분단 50년 동안 각각 많은 변화를 겪은 남한과 북한은 상극하는 이념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경제·정치체제 속에서 각각 현재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운명인식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독자적으로 끊임 없이 진행되어 오면서 남북한주민들은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이방인’으로 느끼는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남북 간의 화해 및, 평화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통일교육은 아직도 시대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및 동아시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체제비교, 이론주입교육에 머물러 있다.²⁾ 이런 현실을 개선하여 이제 남북의 화해·평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고, 분단과 적대의 시대가 화해와 협력, 번영의 시대로 바뀌었다. 따라서 화해와 이해, 통일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불어 냉전체제 속에서 굳어진 학문적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새로운 통일의 공간을 열어 가는 인식론과 언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³⁾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적대의식을 키워주는 교육 대신 화해와 공존,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들어 전개되는 전대미문의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사력과 안보에 의한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 속에 있는 적대의식과 경쟁의식, 우월 의식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간접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결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지 않으면 평화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케 되었다.

새롭게 제기된 인류의 평화문제를 약자 중심의 평화논리로 바라보면, 지금 제기되어지는 평화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겠다.

1) 이상우(1999), "21세기의 한국의 통일정책 과제",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오름, p.25.

2) 한만길(2000),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교육마당 21』, 교육부, p.40.

3) 조한혜정 외(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삼인, p.361.

따라서 기존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만 한정되었던 통일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지구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평화능력의 향상과 평화문화의 증진을 꾀하는 평화교육적 통일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쟁을 추상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의 피해와 참화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평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보다는 평화를 더 강조하고 통일교육도 평화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내용과 실천과제를 살펴보고 통일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의 평화교육적 접근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담보하고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기초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특히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 시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제 및 가족 간, 친구 및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과 사고의 습관이 길들여질 때 평화정신은 인격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평화교육적 접근과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이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분단 지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에 대한 연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구사회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학교 밖의 평화교육의 실천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기관, 시민운동단체, 학교교육현장이 연결되어지는 평화교육의 실천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이 남북한 통일문제의 해결의 차원에까지 연결되

도록 하는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배경과 실천과제를 조사하고, 현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을 검토해 봄으로써 평화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해 보며,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초등학교 평화교육에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냉전논리의 틀 속에서 지속되어온 학교 통일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화해 협력과 평화번영의 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 미·이 전쟁은 평화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고 제주도적 차원에서의 4·3문제의 해결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현장교사로서 제주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으로 평화교육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내용과 실천과제를 살펴보고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한계를 찾아내어, 통일교육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례연구 및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한 기존 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현 통일교육의 문제와 보완책으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관점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 국내외에서 실시되어온 평화교육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의 결과와 평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평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교실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법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다시 피드백한 산출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문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 및 논리전개를 간략히 적시해 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즉 평화번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평화번영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 평화번영정책의 실천 과제를 다루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실천과제의 하나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평화번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현행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하여 검토해 보며, 평화번영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으로 평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교육에의 평화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즉,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의 기본 방향과 내용 선정 그리고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교수·학습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남겨진 과제와 제언을 덧붙여 두기로 한다.



II.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변영정책

변화된 통일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요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간의 화해 및 평화변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시대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남북의 화해·평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화해 협력과 평화변영의 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먼저 평화변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주요 내용을, 3절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초등학교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1. 평화변영정책의 배경



1) 평화변영정책 이전까지의 통일정책

(1)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질서의 확산과 함께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중시하여, UN 감시 하에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⁴⁾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총리 정부는 ‘무력복진통일’ 주장을 폐기하였으나,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이어 1961년 5·16으로 사실상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정립하였다.⁵⁾

1970년대 초반 동·서 간의 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과 미·소·일·중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 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통일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대화 환경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요구하며 남한도 기존의 대북 대결자세를 변화시키지 않음에 따라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전제 아래,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불침략, 남북대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찬성,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찬성,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 등 7개항을 담았다.⁶⁾

이어서 1974년 1월 18일 정부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 제의, 같은 해 8월

4)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pp.2-3.

5) 통일부(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p.84.

6) 상계서, p.86.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는 ①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 ②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 증진 ③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제시하였다.

(2) 1980년대의 통일정책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이의 후속 실천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⁷⁾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 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80년대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이른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7) 통일부, 상계서, p.85.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89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의 흐름 속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1992년 말 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1990년대 이후의 통일정책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변화와 충격의 시대이다.⁸⁾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8) 윤황(2003), “평화변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p.8.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개최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은 ‘서울 불바다’, ‘전쟁불사’ 등 위협적인 발언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북한 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회피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개념으로서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이 등장한 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을 제시하였다.⁹⁾

9) 통일부(2001), 『2002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p.4.

2) 참여정부의 등장과 평화번영정책 제기

(1) 햇볕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기조 아래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햇볕정책’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당면목표가 ‘통일’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이다. 김대중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목표를 보면,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¹⁰⁾ 김대중정부는 북한체제 붕괴론(붕괴 희망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을 포용하여 외부세계로 이끌어 내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셋째, 정경분리를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경제적 파탄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와는 달리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웠다.¹¹⁾ 민간경제분야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북한과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10) 양영식 외(2000),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p.138.

11) 통일부 통일교육원(1998), “정경분리 원칙 상호주의 원칙”, 『통일속보』 제98-3호, p.1.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 방북확대, 투자규모 상향 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넷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되,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북관계 내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자간 국제협력이라는 궤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남북 간의 직접 대화와 직접협상이라는 궤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여 대북 ‘양궤도 정책’(dual track policy)을 쓰겠다는 것이다.¹²⁾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의 대남 비난방송이 중단되었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은 각 부문에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밖에도 연평 해전시의 금강산 관광선 정상 운항과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 또한 미국의 테러사건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방으로 인도하여 전체주의 정권을 변화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¹³⁾하며 시장경제에 접목시키려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며, 남북 간의 대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는 국가목표의 명분과 원칙에도 부합된다. 또한 햇볕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햇볕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에도 부합되며, 특히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었다.

1972년 서독이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 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

12) 백학순 (1997),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양궤도 정책’ 선언”,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p.19.

13) 통일부 통일교육원(1999),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 방향』, pp.40-41.

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되고,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오히려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햇볕정책을 화해·협력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유화정책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주의는 남북한이 신뢰구축 및 안정적 상호관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아래서 불필요한 명분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국민의 신뢰와 지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절대적인 대북 우위 확보 및 강력한 통치력 등의 제반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연계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정책은 연계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호의에 대해 호의로 답할 아무런 제약도 느끼지 않는다.

둘째는 이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메커니즘이 한국의 정치체제에는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오늘날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들이 현실주의 시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대북 햇볕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러·북중 관계의 개선, 빈번한 미·북 직접접촉,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문간의 활발한 교류, 군 중심의 김정일 체제, 핵무기 개발 포기로부터 오는 북한의 불안감 등의 상황적 조건들이 대북 햇볕 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통일의 전 단계로서 북한의 연착륙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적대능력의 제고에 공헌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는 햇볕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적·강제적·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자는 데 그 목표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주는 역효과를

14) 통일부 통일정책실(1998),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p.5.

널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련의 대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 위기적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남한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1998년 6월 ‘북한 잠수정사건’, 1999년 6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 과 ‘서해교전’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래도 일관된 정책수행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일 것이다. 정상회담 발표를 기점으로 통일에 관한 기존의 소모적 논쟁에서 발전적 정책논쟁이 더욱 가열되었고, 햇볕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냉전 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평화번영정책의 제기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된 대북 정책(햇볕정책)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안보 위협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비판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한 채, ‘상호성, 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대화, 신뢰의 정립’ 이라는 원칙 속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이란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다.¹⁵⁾ 즉,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여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15)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p.1.

최근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핵·미사일 문제, 경제위기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 보완·발전시킨 대안, 즉 평화번영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우방인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대화해결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포기 의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을 ‘평화와 번영정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나온 것이 바로 평화번영정책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중 양국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정치·군사·경제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와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라는 시급한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외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의 대한반도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대화 해결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의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평화와 번영 정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민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화해 교류 협력단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정책¹⁶⁾이라 한다면,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은 『평화번영정책』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을 계승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 후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이원섭(1997),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새로운 모색』, 한겨레신문사, p.4.

남북 관계가 질적 변화를 이루고, 각자가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향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화번영정책의 주요내용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시아의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은 북핵 문제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대화 해결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의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평화와 번영 정책’으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북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 계획

평화번영정책은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주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정부

의 의지가 담겨 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갖는 의의는¹⁷⁾,

첫째,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 에너지·인프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

셋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

넷째,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한 점 등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에너지·인프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수 백년 간 동북아지역의 주요 전장 혹은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 평화의 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다. 즉,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기조를 계승하되 평화 증진에 주력하고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등 추진방식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전을 토대로 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평화증진은 당면과제인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 가능하게 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7)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p.3.

그리고 공동번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한반도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시키면서 걸속시켜 나갈 수 있는 중추국가(Hub State)로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의 체계는 <표-1>과 같다.

<표-1> 평화번영정책의 체계¹⁸⁾

평 화 번 영 정 책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발전도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
	추진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달성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증진 · 공동번영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중장기)
	대량 살상무기 해결 (WMD 정책)	정책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경제 협력 단행 ·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 반대 ·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는 포괄안보 지향
북한 핵문제 해결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 불용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18) 상계서, p.15.

2)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원칙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원칙은¹⁹⁾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즉 정부는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갈등과 현안사항을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무력사용은 최후방어수단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다. 이것은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의 상이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초로 국제 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정부는 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 접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는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추진을 의미하며, 초당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여·야당 및 국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및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9) 상계서, pp.5-6.

3)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전략과 방향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전략²⁰⁾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전략으로 추진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주변국과의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을 의미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될 경우 남북의 공동번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방향은²¹⁾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 첫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 둘째,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추진
-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 넷째,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 다섯째,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 여섯째,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21세기 핵심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인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서 발전시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해결’이라는 당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참여정부의 해결원칙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핵 불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 기조는 평화변영정책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4) 평화변영정책의 특징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²⁾

20) 상계서, pp.8-10.

21) 상계서, p.11.

22) 김연철(2003), “2003년 남북관계와 핵문제 해법”, 『민주평통』 제349호, p.13.

첫째,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포괄안보를 지향함으로써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북지원의 명분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일비용의 분담과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연계시키는 논리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함이며 이제는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와 번영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 등 제반 정책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화를 도모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대북정책의 범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보 측면(평화)과 경제 측면(번영)의 균형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전된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 측면에서의 진전까지 이루려는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즉,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동북아 속의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등 내적인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²³⁾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나아가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23) 이원섭(1997), 전게서, p.12.

3.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현실주의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남과 북의 분단과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은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된 영토, 민족, 교류협력관계, 신뢰성, 경제적 이익, 공동체 가치,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정부, 이념, 역사 등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²⁵⁾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남과 북의 분단과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윤황은 보았다.

둘째, 통일정책이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를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남북대화의 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당국자간에 대화·접촉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그 회담들에서 합의된 현안 문제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남북대화 자세는 진짜 알맹이를 얻기 위해 너무 형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대북 커넥션’에 따른 흥정의 접근 방식을 조심해야 한다.²⁶⁾ 그리고 참여정부는 남북대화가 곧 통일이라는 무분별한 통일 열기를 확산시

24) 김홍수(2003), “참여정부의 출범과 북한 핵 위기”, 『21세기 정치학회보』, p.1.

25) 윤황(2003),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p.1.

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를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담은 다방면적 교류·협력의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만 평화번영정책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²⁷⁾

첫째, 전체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추구로 설정되어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한다면 이걸 지나치게 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남북한 관계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미래의 과제만을 제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실행 가능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의 네 가지 원칙들이 단지 원칙으로만 머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에서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신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작 평화번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신뢰이며 ‘북한의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만약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신뢰를 갖지 않을 경우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과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변 강대국에 우리의 통일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여 평화 중재 및 조정 능력을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한다.

26) 상계서, p.9.

27) 김홍수(2003), 전계서, p.4.

2) 교육·홍보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참여정부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통일교육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업은 통일이지만 일부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다양한 평화번영정책의 홍보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통일의 당위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⁸⁾

평화번영정책이 교육·홍보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전 감응화 작업을 해야 한다. 홍보의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화 되어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필요에 반하여 참여정부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참여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북한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체제 우월감은 벗어 던져 버리고 평화사랑의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북한에게 악수를 청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까지는 통일교육이 잘 계획되어 있는데 현 참여정부의 것은 안 되어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위기를 6자 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로 이끈 것처럼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즉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로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적대와 불신을 제거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평화정착을 위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추구 그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28) 윤황(2003), 전개서, p.13.

되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과정의 지향점은 남과 북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향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중요성과 남북통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하므로 평화변영정책이 교육에 깊숙이 파고들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8차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단순한 갈등해결 보다는 화해하며,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에 가까운 평화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 시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적극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이 점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는 달리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서 탈북동포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중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본다.

넷째,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이 아닌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갈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 내용을 평화교육 사례 검토를 통해 받아들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갈등해결 또는 갈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전쟁은 국가 간 혹은 대립적 세력간의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가장 극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영역을 맡는 것은 무리이므로 교육, 홍보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각종 매체 활용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 지식 영역의 평화를 가르칠 수 있다.

Ⅲ. 평화번영정책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평화번영정책은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민족공동체 건설작업을 남북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은 분단현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 교육 활동의 제반 문제는 대부분 교육과정에 기인하는데,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과 현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검토하고,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한계 및 보완점을 찾아 평화번영정책에 걸 맞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학교 통일교육은 국내외 통일 환경과 남북한 관계, 국민들의 통일의식 등의 총체적인 변화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정치 변동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변화된 내용은 실제 각 교과에 반영되어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과 학교통일교육 관련 내용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하여 왔다.²⁹⁾

29) 한만길 외(2000), 『통일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출판 백의, p.61.

학교 통일교육은 1988년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반공교육이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 정식 명명³⁰⁾되었다.

① 반공교육 시기(1948년-1987년)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교육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남한 및 자유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려는 교육으로서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비타협적인 흑백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³¹⁾

이러한 반공교육은 1948년 12월 문교부가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학생 간부 2,400여명을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키고, 초중고 대학의 체육교사 380명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 육군소위로 임명, 각급 학교 학도호국단에 배치한 데서³²⁾ 시작되었는데, 이후 1951년 초 백낙준 문교장관이 전시 교육 방침으로서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戰局)과 국제 집단 안전 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여 미국의 대소전진기지로서의 남한의 역할과 분단을 당연시하는 냉전적 의식이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³³⁾

이렇게 시작된 반공교육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계승 강화되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혁명공약 1조)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좌익계 인사 숙청, 반공법 제정 등의 반공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961년 10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데 이어 1962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개편 반공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1963년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반공·도덕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⁴⁾ 그리고 중학교의 『승공통일의 길』

30) 차우규(200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제4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 p.4.

31) 한만길(1997),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1.

32) 김진경(1989), “분단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교육』, 푸른나무, p.183.

33) 유진오(1956), 『국제생활』, 일조각, p.97. 김진경, 상계서에서 재인용.

34) 김진경(1989), 전계서, p.187.

이런 책을 국정 교과서로 개발 보급하고, 고등학교 사회과의 반공 도덕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반공교육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공식화되었다.³⁵⁾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은 반공교육은 1968년의 북한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8년 5월 향토예비군 발족에 이어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고, 1969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교련’ 과목이 설치되었으며, 1970년에는 여고생에게까지 교련 교육이 확대되어 반공교육은 군사 교육화 되었다. 나아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 안보교육체제를 정비 강화한다는 교육방침을 확립하여 반공교육을 국가안보교육 이데올로기화 하게 된다. 유신시절 3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도덕과(국민윤리과)를 사회과로부터 독립시켜 반공교육을 의식, 가치관, 태도로까지 내면화시키는 ‘사상’ 교육화를 시도하게 되고, 환경정리·특별활동·학교행사 등 학교교육 모든 영역에 걸쳐 반공교육을 전면화하여 반공교육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통치이데올로기로 전면화된 반공교육은 5공화국 시대의 4차 교육과정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당시 반공 교육은, ‘자유민주주의는 선’이요, ‘공산주의는 악’이며, ‘북한은 소련의 괴뢰’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적’으로서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북한의 공산집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 국민적인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통일, 안보교육시기(1988년-1992년)

이런 반공교육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대약진과 1989년 소련의 변화 등 동서 냉전의 해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³⁶⁾,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이 보장되었고, 북한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북한은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공산당 = 빨 달린 도깨비’ 식의 비합리적 교육 내용들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통일안보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35)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어제와 오늘”, 『경남대 사이버 통일교육』, 경남대, 17강 자료 축약.

36) 한만길 외(2000), 전계서, p.62.

강조하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통일교육시기(1992년 이후)

김영삼 정부(6차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의 하위 개념화되고, 교과서에서 이념 비판 부분의 내용이 축소되는 등 1993년 초 이전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통일교육 지침’이 만들어져 학교로 배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비판 부분의 축소를 대체할 만한 통일교육 내용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의 핵 위기나 김일성 사망 이후 조문파동 등으로 촉발된 남북 대립 등의 사회적 변화를 학교 반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로 이끌지 못하였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통일교육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해 왔을 뿐 이데올로기 교육인 ‘반공교육’으로 일관했고 1987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 교육’, 그리고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도덕교육론적 접근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1997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어 2003년까지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에서 ‘화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학교통일교육은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을까 우려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항목을 통해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는 평화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에서 범교과 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간 학교 통일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도덕(윤리)과의 수업 시수와 교과서 분량이 축소되면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통일관련 ‘특별활동’과 7차 교육과정의 ‘학교 재량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37) 한만길 외(2000), 상계서, p.63.

교육과정의 변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동안 통일교육은 시대, 이념, 상황논리에 따라 반공교육과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사용되었다. 지금의 통일교육은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통일운동과 결부되면서 반공 일변도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탈냉전적인 경향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화되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적 동질성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은 그 명칭이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이러한 통일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개관하면 <표-2>와 같다

<표-2> 교육이념과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³⁹⁾

시기	교육과정	교육이념	통일교육	통일교육내용	통일관련교과
미군정기 (45~48)		민주시민양성	국가애, 민족애	·도의교육	공민과
제1공화국 (48~60)	교수요목 (49~54)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	반공정신 함양	·승공, 반공, ·항일 교육	사회과
	1차 교육과정 (54~62)	민주주의교육 도의교육	반공 방일교육		도덕교과 설치
제3공화국 (61~72)	2차 교육과정 (63~73)	민족주체성 교육, 국민교육헌장 제정	반공교육 승공통일	·반공교육 ·승공통일 ·공산침략분쇄	·반공도덕생활 설치 ·교과: 국민윤리 ·대학: 국민윤리(1970)
제4공화국 (72~79)	3차 교육과정 (73~81)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교육이념	반공교육 별공교육	·국민총화 ·별공교육 ·인류공영	·도덕과: 반공포함 ·국립사대 · 국민윤리과 신설 (1981)
제5공화국 (80~87)	4차 교육과정 (82~88)	국민정신교육	반공교육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 무장 ·민주주의 신념 배양	·도덕과 ·국민윤리과
제6 공화국 (88~93)	5차 교육과정 (89~93)	국민정신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과 안보의 이중성	·공산주의 이념 비판 ·우리 체제의 우월성 인식 ·북한은 '적이며 동포'인 이중성	·대학: 국민윤리 폐지 (1988)
김영삼 정부 (93~99)	6차 교육과정 (94~)	민주주의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민족공 동체 지향	·민족공동체 ·통일대비 교육	·북한, 통일 관련 강좌 설치 ·북한학과 설치 (1994)

38)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1 통일교육 지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 p.13.

39) 한만길 (1997),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자료, p.23.

2. 현행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검토

1)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6·15 남북정상 회담은 남북한의 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⁴⁰⁾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에서는 안보·화해·협력·통일, 접근 방법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호 이해와 장·단점 비교 접근, 교육 주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교육 내용에서는 생활·사회·문화적 통합 그리고 교육 방법에서는 참여·체험식, 학생위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 교과 내용은 도덕, 국어, 사회, 국사, 지리,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통일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공통 교과 10개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그리고 특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학교통일 교육은 각 교과에서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입장에서 전개된다.⁴¹⁾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통합교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의 실시나 재량시간의 확대로 상당한 의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에 알맞은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통합교과 통일교육의 교과서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범교과의 운영은 기초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를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로 규정하고, 자기

40) 부산광역시교육청(2001), 『함께하는 통일교육』, p.23.

41) 진병석(2000), “제 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집, p.97.

주도적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⁴²⁾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둘째,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셋째,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넷째,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⁴³⁾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규정하고,⁴⁴⁾

첫째,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 및 건전한 안보관 확립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⁴⁵⁾

이렇게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⁴⁶⁾하는 것이며,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통일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

42)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

43) 상계서, p.3.

44) 교육부(2000),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 『교육마당 21』, p.17.

45)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2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아이플랜, pp.4-7.

46) 부산광역시교육청(2002), 『쉽게 하는 통일교육』, p.23.

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한국사회에서의 자주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각 목표 영역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제 7차 교육과정 영역별 통일 교육 목표⁴⁷⁾

목표영역	해당되는 대표적인 통일 교육 목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우리 민족 문화, 역사, 관습, 언어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 ·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과제 ·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 평화통일의 방법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자긍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 · 국가 발전에서 협력 ·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 집단 상호 작용 및 사회 참여 · 올바른 국제 교류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 확립 · 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립 ·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 · 통일 의지의 고취 ·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다음으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의 체제·이념, 정치·제도적 통합 중심에서 생활·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 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대북 화해 협력정책과 남북 관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 아홉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⁴⁸⁾

47) 상계서, p.40.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표-4>와 같이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4>국민 공통 기본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⁴⁹⁾

구분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과 활동	생 략										선택과목	
재량 활동	60 (2)	68 (2)	68 (2)	68 (2)	68 (2)	68 (2)	136 (4)	136 (4)	136 (4)	136 (4)		
특별 활동	30 (1)	34 (1)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8단위	
연간수업시수 (주당 수업시수)	830 (25)	850 (25)	986 (29)	986 (29)	1,088 (32)	1,088 (32)	1,156 (34)	1,156 (34)	1,156 (34)	1,224 (36)	144단위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 활동의 건반에 걸쳐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활동, 재량활동, 특별 활동 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관해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도덕’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가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교과라고 규정만 해 놓고 목표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제 8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덕’과 교육

48) 통일부 통일정책실(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아이플랜, pp.111-112.

49)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육 과정』, p.6.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과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이 되는 교과, 유덕한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 통합적 인격 교육 내지 덕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교과, 1·2학년 바른생활과 교육과 중등 이상 7-10학년 도덕과 교육의 중간에서 양자를 연계하면서 유덕한 인격의 토대 구축과 그 심화·발전을 도모하는 교과, 교과 통합적 기능과 가치 통합적 기능을 통해 교과로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교과,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연계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교과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바른생활·도덕과에서는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현실,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사회의 전망과 통일 후 사회 적응태도 등을 포함해 통일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방법으로써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을 위해⁵⁰⁾ 필요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표-5 참조>

<표-5> 제 7차 바른생활과·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구분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과정	강조사항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국가·국화 사랑하기 ·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 · 민족문화 유산 애호 및 남북한 문화 교류 ·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발전예의 협력 ·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통일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 · 북한동포 이해하기 · 통일의지 고취

다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도덕과 및 사회과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통일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6> <표-7>에서와 같다.

50) 한국통일연구회(2000), 『초등학교 통일』, 도서출판 그린필드, p.6.

<표-6>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주제 및 하위 내용 요소⁵¹⁾

학년	주제명	하위 내용 요소
3학년	· 분단현실과 통일 · 필요성 인식	-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 국가 안보를 위한 · 바른 자세	-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5학년	· 평화 통일의 당위 · 성과 방법	- 평화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 평화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 일상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6학년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 통일의 의지	-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8학년	· 남북통일과 통일 · 실현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이전보다 더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사회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인간과 공간(지리 중심적 이해), 인간과 시간 및 인간과 사회로 구분된다. 사회과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게 될 것이다. <표-7 참조>

51) 통일부(200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제4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 pp.16-17.

<표-7> 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⁵²⁾

학년		내용체계
3	인간과 공간	· 고장의 중심지와 주민 생활 모습
	인간과 공간	· 고장의 문화적 전통
	인간과 사회	· 고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
4	인간과 공간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인간과 시간	· 옛 도읍지 문화재의 가치
	인간과 사회	· 취미와 여가생활
5	인간과 공간	· 자연환경과 주민생활과의 관계
	인간과 시간	·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인간과 사회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6	인간과 공간	·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인간과 시간	·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인간과 사회	· 민주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평화통일과 민족의 미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도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다. 재량활동은 교육과정에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함께 하나의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원래 6차 교육과정 때 초등학교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학생에게 학습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전면 확대되었다.<표-8 참조>

<표-8> 제 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편제 시간 수⁵³⁾

영역	내 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1학년
교과활동	·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	0~68시간	4~6단위
	· 선택과목 학습	·	34~102시간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 범교과학습	68시간	34시간 이상	2단위 이상(34시간)
	· 자기주도적 학습			
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12단위)

52) 진병석(2000),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집, p.99.

53) 상계서, p.99.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뉜다.

교과재량활동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을 위한 학습과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활동에서 통일교육은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은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2시간까지이며 중학교에서 각 학년별 1시간, 고등학교는 1학년에 1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범교과 활동의 요소는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제 7차 교육과정 전반에 크게 강조된 영역으로 주제탐구활동, 소집단공동연구 등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탐구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활동에서도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해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문제와 관련해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해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 매우 유용하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범교과 학습영역의 통일교육 지도는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은 각종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활동시간은 학교의 경영방침이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 가장 광범위하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⁵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행사내용을 부각시켜 내용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했다. <표-9 참조>

54) 상계서, p.100.

<표-9>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 분석표

영역	관련활동내용
자치활동	· 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적응활동	· 기본생활습관 형성 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정체성 확립활동
계발활동	· 학술문예 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 일손 돕기, 위문활동, 자선구호 활동, 환경·시설보전 활동
행사활동	· 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 활동, 보건 체육행사 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 활동, 교류활동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활동 안에는 ‘민주시민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특별활동이므로 기본의 교과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통일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할분담 활동을 통해 신문의 북한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스크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널리 보도록 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금강산 관광, 탈북 난민 발생 등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시사내용을 학급협의의 의제로 정해 토론할 수도 있다.

계발활동 영역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학예활동 중에서 시사연구반을 운영할 수 있고, 신문반·방송반·연극반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행사활동 영역에서는 학교 또는 학년별 계획에 따라 의식행사나 수련활동을 개최할 때에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통일교육은 과거 북한에 대한 적대적 반공교육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 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지난 50년 간의 전쟁의 아픔과 이데올로기 대립, 상호비방과 전쟁의 위협이라는 남북한의 긴장 분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데 뚜렷한 주안점을 지녀야 한다.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내외적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통일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보완점

사실 우리는 실로 오랜 기간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통일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막상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족동질성의 회복보다는 자신의 실리에 따라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통일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도 빈번하다.⁵⁵⁾ 이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통일교육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6차 교육과정보다도 그 내용을 축소하였다. 다만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① 통일교육 관련 시간의 부족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그리고 특별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과활동을 제외하고 통일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재량활동 시간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운영을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둔다.’⁵⁶⁾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량시간을 학교 실정에 따라서 창의적 활동이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의 훈화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통일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무계획적이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시범학교의 경우 모든 활동을 관련 주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통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방안은 통일교육 시간의 확보

55) 최영표(2002),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와 발전과제”, 『민주평통 초청 워크샵자료』, 통일교육학회, p.7.

56)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194.

이다.

② 학교교육과정상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 도덕과 중심의 편제라는 점이다. 바른생활, 국어, 사회 등 일부 교과에도 통일 교육관련 내용이 있으나 교과와 아주 부차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통일교육 교과와 내용이 한정됨으로써 학교통일교육의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교사, 학생 모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육활동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6차와 비교하여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이 달라진 점이 없다. 당면한 민족 최대의 과제가 통일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족한 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의 확대는 물론 국어, 사회,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심화, 보충이 가능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③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인지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과 신념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판적인 토론이나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통일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교사의 능동적인 교육내용·교수·학습 방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강의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키고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교육방법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교육내용의 전환과 자료의 대폭적인 공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⁵⁷⁾

④ 타성화된 통일행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⁵⁸⁾ 학교통일교육은 형식화를 넘어

57) 정선례(200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58) 김병택(2002), 전게서, p.8.

완전히 타성화 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 반공교육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반공응변대회가 통일말하기대회로 이름만 바뀌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고 표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되풀이되는 행사로 말미암아 지명된 두세 명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의 의식변화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런 행사들이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학교통일교육 행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연이나 탐방 역시 타성화 되고 있다.

⑤ 통일교육 관련 교과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목표가 불명확한 점이다. 교육은 나름대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유목적적으로 행해진다. 교수·학습 활동은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적인 과정을 거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우선 평화능력의 함양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⁵⁹⁾

남북한이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먼저 우리 사회 안의 평화를 중시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요구되므로 이런 점에 유의하여 통일교육 관련 교과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학습 목표가 보충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⑥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획일적 구성이 문제가 된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의 효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과 함께 이들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보기가 힘들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59) 이정화(2002), “평화 교육적 접근을 통한 초등 도덕과 통일 교육의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53.

다름에 있어서 소극적인 평화관에 입각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즉 분단이라는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을 막는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내용 구조를 가졌다. 따라서 통일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비평화의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평화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통일을 평화적 과정을 통해 이루고,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평화적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획일적 구성의 예를 들면, 통일교육과 관련된 핵심교과라고 하는 ‘도덕’⁶⁰⁾의 경우, 통일교육은 주로 ‘국가·민족 생활 영역’ 관련 제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4학년은 전체 10제재 가운데 각각 2제재, 5·6학년은 10제재 가운데 3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이 가운데 1제재가 통일교육 관련 제재이다.

하지만 3·4학년의 경우 교과서가 분권되어 있어 통일관련 제재는 2학기 교과서의 마지막 2제재, 통권으로 되어 있는 5·6학년 교과서에는 마지막 3제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모든 학년에서 교과서의 뒷부분에 일률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량 시간이나 특별활동을 활용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행사교육과 도덕과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가 힘들게 현실이다.

한편 교과관간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6학년 2학기 통일 관련 교과서의 경우 사회과에서는 마지막 단원인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의 두 번째 소단원 ‘통일과 민족의 앞날’이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다. 도덕과의 경우 ‘8. 평화 통일의 길’로 뒷부분에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어과의 경우는 학기의 중간 시기에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로 흥미위주의 단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의 관심과 교육 내용의 재구성 등을 강조⁶¹⁾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 학년별로 인지, 정의, 행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60) 교육부(1997),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93.

61) 홍종생(200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58.

지, 통일을 위한 실천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 영역 간 내용이 중복되어 제시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여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다.

⑦ 통일 교육내용이 남북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국제적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도 남북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혹은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하는 현행 통일교육⁶²⁾은 장기간에 걸친 평화 정착 단계(한반도 평화과정)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제적 정세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반도의 남과 북을 더욱 더 지구적 차원의 삶에 가까이 이전시킬 것이며, 여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다문화 이해, 국제정세의 인식, 제3세계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통일교육은 좀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남북관계 인식, 대북 화해협력정책 등에 대해 교육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현실에 대한 이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미래의 적극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담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3. 평화변영정책에 걸맞는 통일교육 : 평화교육으로의 지향

평화변영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불안이 계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50주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형편이다. 여기서 남북 간 상호신뢰를 쌓으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통일교육이자 평화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북한과 남한 각자의 불안감을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얻은 제한적인 북한과의 의사소통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회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커다

62) 상계서, p.34.

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단은 평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장벽이다. 분단의 구조적·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통일교육은 평화운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관련 활동에서 통일 그 자체만을 절대적 가치로 제한하지 말고 통일의 내용, 즉 과정과 결과에서 평화를 가치로 지향해야 한다. 평화교육의 핵심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조직적 폭력, 무의식적 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된 문화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앞세우고 있다. 소설, 영화, 비디오게임 등 문화상품들 대부분이 폭력으로 사태를 종결짓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몇몇 지식인이나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생활 속에서 자기 이해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평화의 이해 문제가 평화교육을 위한 핵심임을 명심하고 평화의 개념과 원칙을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오늘날 평화라는 주제는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항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평화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친숙한 주제로 자리잡았다.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조화(harmony)’로서의 평화를 말하고, 서구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질서(order)’로서의 평화를 말하며 평화운동가 입장에서는 ‘정의(justice)’로서의 평화를 말한다.⁶³⁾

평화에 대해 갈등은 개인적 폭력이나 전쟁의 부재 같은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근원인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평화를 분류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적 폭력을 장기화시키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을 평화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추가하고 있다.⁶⁴⁾

평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나 직접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드러나는 구조적⁶⁵⁾ 혹은 간접적 폭력의 극복을 의미한다. 즉 평화

63) 강순원(2003), “평화교육의 목표와 방법”,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p.119.

64) 상계서, p.119

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통합적 개념이다.⁶⁶⁾ 그 하나는 전쟁과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폭력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는 등의 착취적 관계의 극복 혹은 정의와 안녕을 위한 조건의 실현을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등이 그것이다. 평화문화 운동은 의식적 선택과 지속적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 과정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위한 교육이다.

다음으로 평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평화교육은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평화를 창조·유지·방해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차원과 형태의 교육을 통틀어서 말한다.⁶⁷⁾ 평화교육은 고대사회에서부터 실시되었는데 플라톤의 이상국가,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푸리에의 공동체 팔랑게 등에서 항상 어린이를 공동으로 가르친다든지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줄이도록 교육하는 것과 같은 평화교육이 강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화란 인류가 회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평화교육이란 인류공동의 가치인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증진시키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⁶⁸⁾ 평화교육은 평화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즉 평화적 가치가 일상적 삶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판적 평화식자교육에 기초하여 연대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다.⁶⁹⁾ 평화교육은 평화문화 증진을 위해 평화교육적 방법으로 평화적 지식을 가르치는 대안적 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교육’이요, ‘평화를 위한 교육’이요, ‘평화예로의 교육’을 말한다. 즉 평화교육이란 첫째, 평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둘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셋째, 실제로 평화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 등의 3중적 속성을 지닌다.⁷⁰⁾

65)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노르웨이의 평화연구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개념.

66) 정현백 외(2001), 전게서, p.2.

67) 정두용외(2000),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p.334.

68) 이정화(2002), 전게서, p.20.

69) 강순원(2003), 전게서, p.120.

인간은 평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각 문화와 언어권마다 평화라는 개념에 대한 고유의 의미를 간직하며, 인간의 삶과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2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그 예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생각할 때, 남북의 대결과 전쟁 위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점점 거세지고 있는 세계화의 파고에 밀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빈민계층과 소외계층의 증대,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과 정리 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대결, 지역 간 갈등과 대립, 가정 폭력, 일탈 청소년의 범죄와 학원폭력 및 북한 동포 기아와 궁핍 등,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평화의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 심지어 학생들이 ‘왕따’와 ‘따돌림’을 받아 자살로 항거하는 현실에서, 평화문제는 학교와 가정 직장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우리 한반도는 남북 분단과 대결을 화해와 공존, 통일로 전환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⁷¹⁾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대이다. 1994년 핵 위기에 따른 전쟁 위기 등 휴전 이후 이미 405 차례의 전쟁 위기를 넘긴 바 있고, 지금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한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매년 군비로만 20조 이상의 불필요한 분단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재생 불가능의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안 된다 하면서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비 증강을 해야 하는 모순을 지닌 채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군비증강이 보장해준다고 하는 비평화적 전제 위에 있다. 이렇듯 남북 간의 분단적 모순은 평화와 정의의 원칙 위에서 순리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로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민족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적대와 불신을 제거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평화정착을 위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70) 오인탁(1988),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p.10.

71) 이삼열(1999), “한반도의 평화연구 과제”, 『유네스코포럼』8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27.

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추구 그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통일과정의 지향점은 남과 북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은 처음부터 단지 민족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우리의 삶을 비평화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구조적 갈등과 폭력에 의한 모든 비평화적 현상들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적극적 시도 자체도 결국 우리 내부의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나 상태로 보고, 통일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⁷²⁾ 통일에 대한 꾸준한 준비와 그 속에서 요구되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을 생략한다면 통일은 단지 하나의 맹목적인 지향이고, 당위적일 뿐이며, 그러한 통일 상황은 더욱 비평화적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평화라는 것이 완결된 상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듯이, 통일 또한 항상 ‘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전망, 비평화 상태로 인한 우리 삶의 고통, 비평화 상태 해소를 위한 우리 자신의 결정권 부재 등에 대한 자각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출발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양산체제인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통일교육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분단체제가 빚은 갈등의 근원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발로 해서 이의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평화교육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는 달리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함께 사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동포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72) 이정화(2002), 전계서, p.19.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중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즉, 남북한의 평화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완성해 내야 한다. 한쪽이 이기는 통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통일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과 남북통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해외 평화교육의 경향과는 달리 단순한 갈등해결 보다는 오히려 화해하며,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갈등의 변형'에 가까운 평화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평화능력 향상은 어떠한 가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태도, 기술, 자세의 문제이다.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담보하고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기초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시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초등학교 때 형제 및 가족 간, 친구 및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과 사고의 습관을 길러 평화정신을 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시작점은 역지사지의 자세이다. 상대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자기 입장을 수정하며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자세가 남북관계에서도 필요하다. 이렇듯 태도를 바꾸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따라서 평화교육 내용을 초등교육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고 실천하여 이제까지의 분단의 질곡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속의 평화교육이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분단현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교육이 되려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방안

1.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 검토

평화변영정책에 따른 통일정책은 분단현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적으로 접근하려면 기존 평화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초등학교 평화교육에 적극 도입해서 활용해 보고자 한다.

평화의 개념을 전쟁 부재의 평온한 상태라고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은 평화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이 철저하게 학생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구성·진행하여야 한다.⁷³⁾ 현재의 통일교육 중심의 학교평화교육은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획일적 제도화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⁷⁴⁾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는 남북한 통일교육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 검토를 통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은 체계적인 교사 훈련을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한반도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남과 더불어 사는 삶, 특히 북한 주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이웃과 환경에 대한 자세를 고치는 것까지 비교적 장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하고 있다.⁷⁵⁾ 이를 학교교육에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사회와 연관된 평화교육을 함으로써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획일적 제도화의 교육에 머

73) 고병현(2003), “관용과 비폭력의 평화교육“,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p.147.

74) 강순원(2003), 전계서, p.133.

75) 상계서, p.134.

물고 있는 통일교육 중심의 학교평화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기존의 평화교육의 사례를 통해 그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다.

1) 남북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1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의 평화, 남북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 생태의 평화 등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평화주제를 다루고 있다. <표-10 참조>

<표-10>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린이 순회평화교육 자율학습 프로그램
교육목적	1단계 1. 세상에 다양한 삶과 생활방식, 가치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색이나 문화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배운다. 2단계 1. 북한의 문화·사회모습을 살펴보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실습지를 통해 통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해 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3.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북한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1단계 (3-4학년용) · 활동 1: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션으로 속담 알아 맞추기) · 활동 2: 시원하게 변명해 봐요! (노래로 편지 쓰기, 우리 반 우리아이들) · 활동 3: 우리 함께 살아요. 1단계 (5-6학년용) · 활동 1: 인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인종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둠별로 토의) · 활동 2: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해요. (살꽃 이야기와 검둥이 성적표를 모둠 별로 읽고, 그림으로 표현) · 활동 3: 활동들에 대한 느낌 나누기, 노래발표 등. 2단계 · 활동 1: 북한 사회를 이해해요. · 활동 2: 통일된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봐요. · 활동 3: 북한의 언어를 배워요. 참조: 학교재량 프로그램 1. 일상의 평화: 너와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언론, 생명존중 2. 남북의 평화: 전쟁과 평화, 북한사회·문화 이해하기 1·2, 해외동포이야기 3.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은 하나, 지구촌의 언어, 지구촌의 종교, 나눔 4. 생태의 평화: 우리는 함께 살아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는 왜 아플까요
교육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퀴즈
기대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며 단계별로 지도하게 되어 세세히 계획되어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평화교육 연구기관에서는 제작된 참고 지도 자료를 초등학교에 배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 남북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2

다음으로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깨동무평화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율학습시간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재량시간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자율학습시간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사인 대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반면, ‘학교재량시간 활동 프로그램’은 각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반에서 실시할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교 재량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내용은 교재발간 배포를 통하여 학교에 제공된다. <표-11 참조>

또한 학교 내에서의 평화교육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평화교육 교사연수도 실시되고 있다. ‘자율학습시간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히는 과정인 1단계와 다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인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인권, 국제사회이해, 환경이라는 보편적 평화와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평화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편적 평화와 특수한 한국의 상황을 담은 평화개념에는 다름과 차이,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주요하게 훈련되는 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인데 이 능력은 평화 형성 능력 기술 즉 평화의 기술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교사의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표-11>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의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요

교육사업명		대상	시작 년도	1회당 강의 구성수	
어깨동무평화교육	자율학습 프로그램	· 1단계 3-4학년용	초등학생	1999년 매주 토요일	한 학급당 2시간용 2번 실시 (1, 2단계)
		· 1단계 5-6학년용			
		· 2단계			
학교재량 프로그램 (교재안 제공)		초등학생			
참조: 평화교육 교사연수		초등학교 교사	1999 (4회)	10강좌 (6일)	

3) 초·중·고생을 위한 청소년 평화교육

초·중·고생을 위한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12 참조>, 프로그램의 주제가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비폭력, 화해, 통일,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등 아주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초등학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으나 내용의 양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곧바로 받아들이기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이 점에 유의하여 받아들일 만한 주제를 적당히 골라 초등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표-12> 초·중·고생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괄⁷⁶⁾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이름	교육대상	단체명
·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 어깨동무평화교육	초등학생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비폭력, 화해, 통일	· 평화학교	중고생	· YMCA 청소년부
·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초중고생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정안	중고등학생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76) 정현백 외(2001), 전계서, p.97.

4) 겨레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민족화해캠프

〈통일교사모임〉이나 〈남북어린이 어깨동무〉는 평화교육적 접근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경향성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이는 정규 학교의 반공안보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화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제안하면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체험을 교육의 과정으로의 도입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편견의 해소, 상호존중, 다름의 수용, 남북문화의 공존, 타협과 양보의 수용 등의 평화적 가치를 생활화, 내면화하는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방식을 시도한다.⁷⁷⁾ 즉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경제, 정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가치관, 생활습관, 태도 등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훈련에 강조점을 둔다.

문화이해지를 적용한 북한이해 교육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문화학습지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다른 인지와 해석, 언행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은 왜 그런가를 해석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⁷⁸⁾ 〈남북 나눔 운동〉, 〈남북어린이 어깨동무〉는 학교방문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사모임〉은 학교 정규 교육이나 과외 통일교육에 이 훈련프로그램을 결합시키고, 응용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표-13>는 이러한 취지 아래 〈통일교사모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진교조〉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한 ‘겨레사랑 평화사랑 제3회 청소년 민족화해캠프’의 주요 내용이다.

77) 이장원(2000), “한국의 통일, 평화교육의 현황과 실례: 학교의 통일교육”, 『21세기 한반도 평화, 통일교육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pp.31-51.

78) 이장원(1999),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과정”, 『국제이해교육교원연수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13.

<표-13> <통일교사모임> 등 3개 단체 공동주관의 ‘겨레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민족화해캠프’ 교육내용

구 분	프로그램	교육내용
북한 이해 활동	·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 북한 사진, 영상, 만화 보기	· 북한에 대한 막연한 이질감 해소 · 함께 살수 있다는 자신감 확보
분단현실 체험활동	· 교실 설치(부스형)-탈분단 교육 활동 · VTR시청, 강연회 등	· 분단이 우리 사회에 낳은 여러 잘못된 문화, 고정 관념,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해 교육
평화, 화해 체험활동	· 평화체험 놀이 · 통일노래 부르기 · 통일걸개 만들기	·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적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화해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	· 도미노게임 · 물놀이(레프팅)	· 모듬 활동을 통한 타인 배려와 협력
민족의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기원	· 통일기원 장승 만들기 · 합토제, 대동놀이	· 화해와 협력의 문화적 경험 · 평화와 통일의 기원 · 개인과 민족공동체의 발전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활동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민족화해 청소년 명예대사	· 캠프조직과 진행, 평가활동의 학생참여 · 민족화해의 큰 물결을 전국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활용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갖고 있어서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사모임>은 학교 정규 교육이나 과외 통일교육에 이 훈련프로그램을 결합시키고, 응용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어서 대도시 초등학교나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니고서는 감히 실시할 엄두가 안 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소도시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제약이 있다.

5)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평화정신의 함양은 어린시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즉 형제 및 가족 간, 친구 및 학교의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과 사고의 습관이 길들여질 때 평화정신은 비로소 인격화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 평화교육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평화사랑의 마음과 사고를 함양하는 방안으로서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도입할 가치가 있다.

학교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정착에 커다랗게 기여한 바 있는 윌리엄 클라이더리의 ‘창의적 갈등해결’에서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peaceable classroom)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다.⁷⁹⁾ 그에 의하면, 교실에서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⁸⁰⁾

① 경쟁적 분위기: 교실의 분위기가 매우 경쟁적일 때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나쁘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갈등은 주로

- ▲ 모두들 자신만 생각할 때,
- ▲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기술이 부족할 때,
- ▲ 학생들이 패배하면 자존심을 상실한다고 생각해서 상호관계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느낄 때,
- ▲ 선생님과 급우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때,
- ▲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경쟁할 때 발생한다.

② 불관용적 분위기: 불친절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로, 갈등은 주로

- ▲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시킬 때,
- ▲ 외롭게 고립되어 가는 친구들을 돕는 정신이 부족할 때,
- ▲ 다른 친구들의 성취와 소유, 능력에 대해 시샘할 때 발생한다.

③ 미숙한 의사소통: 특별히 갈등을 많이 유발시킨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주로 학급 동료들의 의도, 느낌, 요구 또는 행동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은,

- ▲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나 바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때,
- ▲ 감정, 요구사항을 드러낼 장을 갖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 ▲ 다른 친구의 말을 듣지 못할 때,
- ▲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79) 캐롤 길리건(1997), 허란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동녘, pp.3-4.

80) 상계서, p.3.

④ 감정의 부적절한 표현: 모든 갈등은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학생들이

- ▲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
- ▲ 분노와 좌절을 비공격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때,
- ▲ 감정을 억누를 때,
- ▲ 자기통제를 상실할 때 주로 발생한다.

⑤ 갈등해결 기술의 부재: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갈등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응할지 모를 때 갈등은 증폭한다.

⑥ 교사들의 힘의 오용: 교사 자신이 그 힘을 오용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교사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는,

- ▲ 학생들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대를 부여할 때,
- ▲ 유연성 없는 규율을 교실운영에 적용할 때,
- ▲ 계속해서 권위적으로 힘에 의존하려 할 때,
- ▲ 두려움과 불신의 분위기를 형성할 때 등이다.

반면에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교실의 소음 여부나 크기, 개방성 여부보다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따뜻한 돌봄이다.⁸¹⁾

① 협동 :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배운다.

② 의사소통 : 학생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예민하게 듣는다.

③ 관용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편견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배운다.

④ 긍정적인 감정 표현 : 학생들은 느낌, 특히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배운다.

⑤ 갈등해결 : 학생들은 갈등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돌보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창

81) 캐롤 길리건(1997), 상계서, pp.4-5.

의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면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마음도 키워진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평화교육 방법으로 도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6) 또래중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

또래중재 프로그램은 학교평화교육의 일부로서 현재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있는 급우들(또래중재인, peer mediator)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에서 또래(학생)중재인들의 중재 성공률은 86%(라스베가스 클락 카운티 교육위원회 조사)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83년 SMART(School Mediators' Alternative Resolution Team)라는 학교갈등해결 전문팀이 뉴욕지역에서 또래중재 훈련을 시작한 이래, 학교에서의 폭력 감소, 문제해결, 학생들 간의 관계 증진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⁸²⁾ 1999년 현재 8500개의 학교(미국 공립학교의 10%)에서 또래중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갈등해결, 또래중재 훈련은 전반적인 평화교육과 함께 더불어 시행될 때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또래중재 프로그램에는 중재 프로그램 이외에도 편견 줄이기, 분노조절 등의 평화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은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공립 고등학교 또래중재 훈련과정의 진행내용이다.

① 1학기

가. 학교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사

나. 중재과정 조사

82) 강영진(1999), “미국의 학교폭력·집단 괴롭힘 해결 노하우 ‘또래중재인’으로 ‘왕따’없앤다”, 『신동아』 3월호, p.291.

- 다. 갈등에 대해 진단하기
- 라.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② 2학기

- 가. 상이한 관점에 대한 인식
- 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점검
- 다. 분노 조절하기
- 라. 현재의 갈등문제에서 관점과 분노에 대한 연구

③ 3학기

- 가. 문제해결
- 나. 갈등 중재
- 다. 편견 줄이기
- 라. 학교와 공동체에 중재 확산

④ 4학기

- 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탐구
- 나. 공동체에서의 문제해결 접근 연구
- 다. 평화윤리 개발
- 라. 갈등중재
- 마. 중재를 통해 학교에 끼친 영향 평가

또래중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역적·환경적 차이를 생각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또래중재(Peer Mediation) 훈련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 훈련(미국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 훈련(미국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⁸³⁾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하기 좋게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

83) 정현백 외(2001), 전계서, pp.212-213.

가 있으며 가치관 정립이 안 되고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막무가내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 훈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① ‘다름’에 대하여

가. 대상: 초등학교 2-6학년

나. 과정

-학생들과 함께 언제 그들이 ‘다르다’ 느끼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토론은 다름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것을 말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 “모든 사람은 때때로 ‘다르다’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종종 자신이 남과 다름으로 인해 아주 이익이 될 때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다. 다름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을 격려한다.

다. 토론 주제

-만약 내가 우리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 혹은 남학생이라면 어떻게? 그로 인한 장점은 무엇일까?

-만약 내가 유일한 장애인이라면?

-만약 내가 백인학급에서 유일한 유색인이라면?

-만약 내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배구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만약 내가 오늘 유일하게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 주의사항- 너무 심각하지 않은 소재들을 선택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② ‘공격성’에 대하여

가.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나. 과정

-철판에 ‘공격’이란 단어를 쓰고, 그 의미가 ‘사람들을 신체적 혹은 감정적으로 해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질문: 공격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등등

-설명: 갈등상황에서 화나거나 좌절 한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학생들은 감정을 비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는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다. 토론

-사람들은 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

-공격적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가? 등등

○ 고학년 어린이들과는 공동체와 세계의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공격적인가?”라고 물어봄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혹은 그렇지 못한 행동은 무엇인가?”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③ ‘분노’에 대한 목록 작성하기⁸⁴⁾

가.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나. 과정

-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도록 한다.

-목록을 보면서, 어떤 방식의 표현이 위험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적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추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목록에 대한 반응을 펜터마임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분노의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 번 펜터마임으로 만든다.

다. 토론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험한 것인가?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을 더 문제에 빠뜨리게 할까?

-분노에 대한 긍정적 표현 가운데 경험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보도록 한다.

84) 상계서, p.214.

2.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방향

1) 기본 방향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평화교육적 접근과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형이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교육이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쟁과 폭력문화를 몰아내는 교육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와 사회 구석구석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평화 교육은 ‘너와 나’가 하나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다.⁸⁵⁾ 20세기 내내 세계사를 지배해온 전쟁과 파괴를 넘어 21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길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일 뿐 아니라 한 몸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무지와 탐욕의 폭력에 맞서 연대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언제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냉전의식의 자각,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고민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평화’는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절명의 요구⁸⁶⁾이며, 통일의 출발점이고 통일의 지향점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통일’과 ‘평화’의 인식에서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할 기본 방향이며 기본 전제이다.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화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중심에 있고,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적인 세계 건설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실현은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직접 달성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평화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일상화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평화문화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와 학교의 환경에서 변혁적 성격의 평화교육적 통일교육 실천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개척자적인 열정이나 평화와

85) 정선례(2001), 전제서, p.64.

86) 한만길 외(1999),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30-31.

통일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굳건한 의지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렵다.

서구의 평화교육은 사회교육이나 시민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제도교육에서 주로 시도되면서 각 사회운동 단체는 각각의 주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분쟁의 후유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평화교육은 학교보다는 주로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화교육이 사회교육, 시민교육 차원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거꾸로 학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운동 단체도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다. 즉 분쟁 지역일수록 학교보다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에는 ‘학교’라는 기관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기존의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현장, 평화관련 연구기관 및 실천적인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일반의 평화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학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집단들이 적극 나서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연결하여 우리사회에 정착할 한국적 평화교육의 모형을 만들어내고, 삶의 문화로 정착시켜가야 한다.

평화교육은 ‘평화능력’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 교육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⁸⁷⁾하여 보면,

첫째, 전쟁과 폭력의 원인을 개개인의 공격적 사고로 보고 평화적인 인격형성과 사고의 변화를 이룩하는데 주력하는 유네스코 중심의 국제이해 증진의 평화교육

둘째, 전쟁과 폭력의 원인이 되는 갈등이나 공격적 태도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입장 변화와 갈등을 극복할 능력의 개발 교육

셋째,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구조적 폭력’과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현실에 대하여 사회 비판적 의식 형성과 적극적인 행동 가능성을 수립하려는 교육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평화교육 유형으로 한 평화교육적 접근 방법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또한 평화교육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폭력

87) 정애경(1990), “평화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프레이리 교육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p.10.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평화교육은 195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널리 공유되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평화는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교육도 전쟁을 막아내는데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과제를 수반하였고, 전쟁의 원인을 인종적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차이와 보편성을 ‘알려줌으로써’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하여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는 모든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러 민족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천은 1953년에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협동학교사업 (Associated School Project)으로 전개되었다.⁸⁸⁾

이처럼 전통적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알리는 것’이었다.⁸⁹⁾ 즉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문제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초국가적 관점에서 보고, 의식교육, 가치교육 등의 형태로 인간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국제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냉랭한 국제관계를 유지시키는 촉진자로서 기능할 수 있었지만,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불평등, 세계적 수준에서의 종속이라는 위계 구조적 모순을 간과한 채 전개되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참여의 태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능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평화교육 이해를 바탕으로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한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의 평화’를 염두에 둔 평화교육을 그 기본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88) 정두용(1999), “국제이해교육 일반”,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14.

89) 고병현(2001),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53.

2) 목표와 내용

다음으로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목표는,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의 기회와 평화의 근원뿐 만 아니라 반평화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둘째, 사람들이 평화문화를 위한 행위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술과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즉, 평화교육의 목표는 평화에 관한 지식, 기술, 가치와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내용에는 통일에 대해 평화교육적 관점을 갖고 북한 주민을 포용하며 분단의 아픔을 남과 북이 함께 치유해 나가려는 내용이 삽입·교육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중심의 학교평화교육은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체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획일적 제도화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⁹⁰⁾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는 남북한 통일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폭력인 각 지역 분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는 크고 작은 폭력의 본질을 정치·역사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우며 더불어 이에 대한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화 해야 한다.⁹¹⁾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서 갈등해결 또는 갈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전쟁은 국가 간 혹은 대립적 세력간의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가장 극한적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 사회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갈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 교육 내용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를 통해 지식의 영역에서 평화를 가르칠 때 북한 이해, 사회적 약자 문

90) 강순원(2003), 전계서, p.133.

91) 상계서, p.122.

제, 이라크 전쟁 등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인권교육은 평화교육의 기본적 바탕이 된다.

그러나 교사 혼자서 모든 평화교육 영역을 맡으려 하는 건 무리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각종 매체 활용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로서는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평화교육에서 양육되어야 할 태도와 가치의 내용으로는 자기 존중(자신의 가치,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함), 타인에 대한 존중(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생명/비폭력 존중(적대자나 갈등상황에 대한 폭력적 대응 거부, 물리적 폭력, 무기사용에 반대, 협동적/비폭력적 문제해결), 지구적 관심, 생태학적 관심, 협동, 개방/관용(타인의 사고와 경험을 비판적이지만 개방적으로 접근 및 수용,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 존중), 사회적 책임(정의, 비폭력, 평화,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긍정적 비전(희망적 미래에 대한 상상과 그 실천)과 같은 것이다.

평화교육에 있어 보편적 가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범주설정이 필요하다. 평화교육의 제 범주를 크게 세 영역, 즉 지식 영역, 기술 영역, 자세, 가치, 태도 등의 영역으로 나누면 <표-14>와 같다.⁹²⁾

<표-14> 평화교육의 제 범주

지식의 영역	기술의 영역	자세, 가치, 태도의 영역
식민주의/제국주의	협동/놀이/노작	자기 존중 타인존중
분단/통일	대화	상호 이해 양보
전쟁/군축	토론	자율 비폭력
핵 인권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환경 정의	창의적 활동	생태학적 관심
갈등 민주주의	중재	미래에 대한 전망
계급 성	타협	진리에 대한 헌신
인종 관용	명상	상생(相生)

92) 상계서, p.137.

우리나라 구조적 폭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위한 인지적 영역에서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평화적 심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의적 목표 행동으로서의 평화적 가치에 대한 대안 선정,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적 해소 방안 및 지적, 정의적 목표도달을 위한 기법 등, 평화에 관한 무엇을, 어떻게, 왜 다룰 것인가가 평화교육의 범주로 포함되어야 한다.⁹³⁾

평화교육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정의롭게 만들고 동시에 비폭력적 평화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갖추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평화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상당한 교과 자율성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평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평화교육의 내용선정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제일 먼저 평화교육의 내용으로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화 문제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우리들의 삶을 비평화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 교육의 계획에서 가장 큰 고민은 북한을 어떤 상대로 여겨야 하는 가이다.⁹⁴⁾ 평화교육에서 우리는 북한이 평화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북한을 주적, 협력의 동반자, 제3자로 각기 가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각기 그렇게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입체적인 고민이 북한과 통일을 자발적이고 타당하게 인식하는 성과로 인도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 상황의 직접적 폭력에서 거시적 상황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활동으로 확대되는 평화교육의 원리가 통일교육에서는 거꾸로 적용될 수 있다. 전쟁과 분단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이 없고 일상에서 별 관심이 없는 신세대인 경우 이러한 평화교육의 원리가 무력하다는 걸 실제 활동에서 관찰된다. 오히려 평화가 정당하다는 보편성을 깨달은 후 그것을 분단에 적용할 때 문제의식이 효과적으로 생

93) 상계서, p.136.

94) 하선영 외(2002), 『21세기 평화학』, 풀빛, p.512.

긴다.

셋째, 북한과 분단에 대한 우리의 감정경향을 성찰하고 조절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 라는 말과는 반대로 ‘느끼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안다’라는 과정에 가깝다. 감성관련 활동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증진한다.

넷째, 참여자들에게 도전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성취감을 느낀다면 통일을 신나는 일로 여기게 된다. 참여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구체적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최대 목표이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평화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이 만났을 때 갈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등장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과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한다. 즉 존중, 관용, 신뢰의 덕목, 그리고 역지사지의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평화의 의식화와 평화행위능력의 교육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며, 갈등관계를 대화와 화해와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평화교육이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평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평화교육에서는 아동들이 그룹 안에서 생긴 갈등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교사가 해결책을 실시하도록 해서 갈등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즉 평화교육이 평화부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게끔 의식화시키며 이를 변혁시킬 수 있는 평화행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

여덟째, 공격성의 제거와 무관심의 극복을 평화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회구조의 문제가 곧 비평화적인 현실이 된다. 이 구조에는 인간의 적대적 의식과 공격성의 심리가 영향을 준다. 오늘날 더욱 잔인해지고 폭력적인 현실은

대중매체로 증폭된 공격성의 생리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나 폭력의 현상과 공격성의 심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공격성의 문제는 평화교육에서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전쟁도 집단적 공격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파괴적인 본능으로서의 공격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세계나 사회 속의 폭력과 위협구조에 대해 감각을 갖게 하는 교육, 고통당하는 자 피해를 보는 자들에 대한 공감을 갖게 하는 교육,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와 발전, 평화를 실천하려는 사회적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⁹⁵⁾

아홉째로 평화교육의 실천 문제이다. 평화교육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과 어른들의 성인교육에서까지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에 관한 문제가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골격이 형성되는 폭력이나 갈등에 관한 의식을 어린이교육에서부터 철저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의 대중매체를 살펴보면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이 평화의식을 기르며 평화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6·25 전쟁을 겪고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전쟁교육과 공격성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이 공격성 교육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평화적 사회와 인간관계의 모습을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화책, 만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학교의 교과서, 장난감 등 모든 매체에서 평화적인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수동적인 감상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쟁과 핵무기, 군사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토론하기,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가를 아는 것,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경쟁과 독점, 그리고 지배보다도 협동

95) 정두용 외(2000), 전계서, p.339.

과 상호존중을 권장하는 역할을 해 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들이 평화교육연구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이렇듯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실천 방법이 막연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교육은 모든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고 발전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계몽적인 교육은 모두 평화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므로 평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평화교육으로는 평화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애매해지며 실효성이 있는 평화교육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력과 평화부재 현상들을 밝히고 그 원인을 사회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과학기술의 면에서 찾아내 피교육자들의 경험세계와 연관시켜 분석하며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 해야 한다.⁹⁶⁾

3.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평화 번영시대에 걸맞은 초등학교 통일교육 개선 방안으로서 다양한 교수학습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에 적당한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 교육은 다양한 체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을 통해서 학습해야만 피상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거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통하여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전쟁을 막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남북한간에 이질화된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을 체험적 활동을 통하여 알게 해야 한다. 그 교육 효과는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통일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

96) 상계서, p.335.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통일 교육은 주로 문자매체를 활용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보다는 피동적인 학습자로 전락하고, 탐구를 통한 학습보다는 암기와 기억을 통한 학습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통일 교육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이 제대로 함양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교육 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통일 교육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통일 교육에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고전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교과서는 정보량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내용들을 적시에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시사 정보를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정보를 찾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 통일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도록 하거나 방송을 듣고 통일 관련 내용들을 적어 오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능력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 평화교육 사례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활동을 통한 접근 방법,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접근 방법, 그리고 실천 및 체험학습으로서의 평화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화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1) 교과활동을 통한 접근

(1) 도덕과를 통한 평화교육

전쟁이 없는 21세기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최대 과제이자 목표이다. 즉 평화에 근거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

일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시대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분단 5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말살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변화된 통일 환경 시대에 이렇게 반복 의식이 유지되는 한은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화된 통일 환경과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번영정책 시대를 맞아 하루 빨리 반복 의식에서 벗어나 평화교육으로의 발 빠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통일교육이 전쟁을 막기 위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평화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통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는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위와 상황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표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들로 하여금 감상주의적 통일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들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실천 의지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입장에서 평화와 관련된 실천 속에서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 도덕과에서 평화교육을 하려면 우선 교실 안에서 서로 다른 가정환경,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서로 잘 화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의미를 두고 평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⁹⁷⁾

한국에서 가장 절실한 비평화적 상황인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야 할 평화교육의 학습목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7) 차우규(2002), 전게서, p.47.

<표-15> 통일교육이 다루어야 할 평화교육의 학습목표⁹⁸⁾

영역	인지	정의	태도
학습목표 통일을 위한 준비 -전쟁 -북한 이해 -민족공동체 정신	· 전쟁에 기초한 해결 방식의 불안정성과 위협에 대한 통찰 · 북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 · 반만년 역사 기간동안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역사	· 비폭력의 윤리 · 민족공동체 정신	· 통일을 위해 폭력이 아닌 평화를 통해 실천하려는 의지와 열망
평화주의적 태도 -평화 -공존 -다문화 이해 -인권	· 평화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인식 · 공존의 의미 인식 ·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인식	· 통일은 곧 우리 민족에게 평화라는 이상이 된다는 확신	· 평화에 대한 책임감 · 분단으로 인해 문화적 격차가 생긴 북한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한 관심과 이해
비관적 대안 탐색	·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비평화적 상황 인식 · 대안적 전망 제시 능력 · 의사소통 기술 · 갈등 해결 기술	· 통일을 통한 미래 건설은 우리의 과업이라는 확신	·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대안적 전망의 제시를 위해 일하려는 준비성



도덕과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키려는 안보와 평화공존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소중함을 안보와 연계하는 통일교육이 초등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하여 전쟁의 위협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통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일깨워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교육은 학교통일교육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안보의식이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보다는 애국심의 함양과 혼돈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적 개념이므로 이

98) 이정화(2002), 전게서, p.83.

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안보를 이해해야 하며 이런 기본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이므로 도덕과 교육을 통해 분단이라는 위기를 비평화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의 중요성이 도덕과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즉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다각적 차원에서 분단의 원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분단으로 인한 손실과 고통에 대해 알게 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군사문화와 맹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교화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민족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어제의 북한이 아닌 오늘의 북한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시사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도덕과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통일을 만드는 평화문화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평화교육 선례를 통해 평화적 통일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과정인지를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체험을 도덕과를 통해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사에게 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제도적·정치적 차원에서의 통일만이 아닌 평화적 이상을 향한 과정적 의미로서의 통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현재의 도덕과를 통한 통일 교육은 장차 이루게 될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화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른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정책, 통일문제, 북한의 실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모순만을 지적하면서 자유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온 방법으로는 평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우선 기존 도덕과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평화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평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평화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심화하고 확대해가며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평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국어과를 통한 평화교육

국어과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면서 동시에 국어교육이므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일치하면서 국어과의 교육목표와 지도방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⁹⁹⁾ 도덕과 뿐만이 아니라 국어과에서도 아동들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실천 의지를 갖게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입장에서 평화와 관련된 실천 속에서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문학 작품 감상과 글 쓰기 등을 통해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과를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어과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평화와 화해·협력의 필요성 자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상호존중의 자세·태도 형성을 주요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고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자세에서 접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관련 내용 지도가 학생의 언어에 관한 지적 기능 신장, 의사 교환 기능, 문예 감상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어과의 통일교육 방법은 국어과 교육의 주요한 방법인 학생들의 직접적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감상 등을 주로 활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언어생활은 지식, 감상, 말하기·듣기, 쓰기, 일기 등에서 통합적으로 이루

99) 교육부(2003), “국어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p.63.

어진다. 따라서 국어과의 통일교육도 통합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든 교과교육에서 요구되듯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모든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도덕과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할 때이다. 오히려 국어과에서의 언어, 문예 영역을 통하여 통일·평화교육이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사회과를 통한 평화교육

사회과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일관되게 교과목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⁰⁾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 사회과학적 탐구력과 인문학적 이해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발전과정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②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해·협력의식을 함양하여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사회를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적 참여능력을 기른다.

③ 우리 민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참여와 책임의식,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대한 존중 등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사회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

100) 교육부(2003), “사회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p.70.

④ 남북한의 사회 현상을 비교함에 있어 남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을 지양하여야 한다. 객관적 접근법은 남북한 사회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어느 일방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현실에 대해서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⑤ 남북한의 사회현상을 비교할 때 차이와 동질성을 모두 확인하는데 유념해야 한다. 비교 활동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차이의 발견에 치우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교 우월감의 확대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배타적인 감정을 생성·심화시키고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현상의 비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정의 심화·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간의 동질성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가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동질성이 통일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닌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판단능력은 통일사회로 가는 노정에서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¹⁰¹⁾

⑦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 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학습 주제나 소재를 선정할 경우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자신들이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강의나 교육 자료 등을 매개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 규범문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생활 문화에 해당하는 소재로서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 이웃 생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 문화 중심의 접근은 추상성을 극복하여 구체성을 지향하는데도 많은 이점이 있다.

101) 전계서, p.71.

⑨ 강의 중심의 교육 방법은 강의를 위주로 하되 일문일답 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을 가미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제를 학습자가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사회과에서 지도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과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을 삽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과목이다. 따라서 별 의미 없이 주마간산 격으로 지도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자료를 학교에 시급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미술과를 통한 평화교육

미술과에서는 ‘북한 미술의 형태와 특성’, ‘북한 미술에서 전통적인 요소’, ‘남북한 미술의 차이점과 유사점’, ‘미술 실기’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상에 통일교육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특정 내용들은 교과 간 통합교육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겠지만 흔히 통합교육으로 포함되는 미술교과는 그 특성상 특정 내용이나 주제와는 상관없이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 미술교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표현 방법만이 적용된 통합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²⁾ 따라서 미술교과 학습 안에서 통일교육 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이 필요하다.

미술과를 통한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남북한 미술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주제로 표현활동을 하기보다는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미적 체험’과 ‘감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내용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근거하여 학교 급별로 미술교과에 반영할 수 있는 통일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6>과 같다.

102) 교육부(2003), “미술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p.77.

<표-16> 미술과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내용 103)

학교 급별	내용영역 체계		미술교과의 통일교육 방안 내용	비고
초등 학교	미 적 체 험	(1) (3·4학년) 자연미 발견/(5·6학년)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 남북한의 자연미(3·4학년)(남북한 자연의 아름다움 발견) · 남북한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 이해(3·4·5·6학년) · 남북한의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5,6학년)	· V C R 등 시청각 매체 활용의 수업 유도 · 신문 자료) 시사자료 활용 수업 , NIE) · 인터넷 자료 · 토론 학습 · 개인 및 소집단 표현 활동 · 북한 미술전 관람
		(2) (3·4학년) 조형미 발견 / (5·6학년)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표 현	(1) 주제 표현	· (주제표현) 남북한의 일상생활모습 그리기/ 남북한 가정 및 이웃의 생활 등 남북 사람들의 의식주 등의 생활과 관련하여 표현하기 · (표현방법) 북한의 회화, 디자인, 공예 등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 이해하기 · (표현 재료와 용구) 남북한 작품에 나타난 표현 재료에 따른 차이점 이해하기	
		(2) 표현 방법		
		(3) 조형요소와 원리		
		(4) 표현 재료와 용구		
감 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 남북한의 학생 및 기성작가의 작품 감상(의식주 및 생활과 관련된 작품 감상) ·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문화 감상		
	(2) 미술품 감상			

위와 같은 내용 방안 외에도 ‘북한 미술의 형태와 특성 이해하기’, ‘북한 미술에서의 전통적인 요소 구별하기’, ‘남북한 미술(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의 차이점과 유사점 알아보기’, ‘미술 실기를 통한 통일의지 함양하기’,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따른 구상 나타내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의 작품 구상하기’, ‘더불어 사는 삶을 표현하기’, ‘남북한의 일상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는 내용으로 작품 꾸미기’ 등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 환경을 인식하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일 그리기 대회 및 통일그래픽 경진대회, 남북한 공예품 만들기, 통일나무 꾸미기 등도 모두 미술 영역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미술교과와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연관지어 지도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103) 상계서 pp.77-78.

될 것이다.

(5) 음악과를 통한 평화교육

음악과는 음악성, 창의성, 심미성에 중점을 두어 인간의 본질이나 개인적 완성과 관련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은 인간 본질이나 개인적 완성보다는 통일이라는 공동체와 관련한 목적을 가진다.¹⁰⁴⁾

음악과에서는 ‘6 25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운 금강산’ 등과 같은 통일과 관련한 악곡을 다루어 왔다고는 하나, 이들 곡을 통해 개인의 예술적 정서를 중시하였으며, 사상이나 통일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음악과는 순수 예술론에 따른 교과 특성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통일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교과 혹은 기능 교과로서의 역할은 거부해 왔다. 특히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북한 및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경계심이나 비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비판 중심의 정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제시하는 자료 역시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교육 내용이었으며, 감정적이며 정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입식 교육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세계가 하나의 공간화, 우리나라 경제력과 안보력의 증대, 군부 정치에서의 탈피,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실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증대 등의 환경 변화는 통일 교육의 방향을 비판위주, 주입식 교육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음악 교육과정(제7차)은 음악을 통한 다양한 민족, 역사, 문화 이해,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중시함으로써 음악과에서 통일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법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음악과는 음악적 분단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104) 교육부(2003), “음악과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 p.80.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이 때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남북한 음악의 소통이며, 음악 교육에서의 북한 음악의 이해이다.

음악과에서 북한 음악 이해는 우리 초등학교 아동들이 북한 음악을 부르고, 듣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의 통일 교육은 음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나 비판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음악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는 방법은 가창이나 감상 수업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수업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첫째, 공산권의 음악과 서방의 음악에 대한 비교 감상, 분석, 토론 법을 활용할 수 있다.¹⁰⁵⁾ 즉, 동일한 음악을 서양음악가가 연주한 음악과 공산권의 음악가가 연주한 음악을 제시하고 감상, 분석,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차이코프스키 '비창'에 대하여 러시아 지휘자인 트라빈스키의 음악과 카라얀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 방송교향악단, 레닌그라드 심포니, 폴란드 국립교향악단, 모스크바 필 등의 음악과 서방의 음악을 비교하고 각기 그 표현법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개량된 악기 연주에 대한 감상, 분석 토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악기를 개량하여, 현대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개량 악기 연주를 듣고 분석, 토론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민요 감상과 북한 발성법을 노래를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즐기는 민요와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민요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들 민요는 북한에서 다수 녹음 생산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민요를 감상하고 북한 방식으로 불러 볼 수 있다.¹⁰⁶⁾

이 밖에도 북한 예술단의 공연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느낀 점을 서로

105) 상계서, p.81.

106) 상계서, p.83.

이야기 해보거나, 북한 만화 영화감상시간을 갖고 그 영화에 사용되는 영화음악을 듣고 우리 음악과 비교하며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접근

제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통일교육이 약화된 반면에 교사에게 교과자율권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서 특별활동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통일교육 즉 평화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오히려 많아졌다. 물론 교사의 관심과 열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평화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첫째, 평화에 관한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 살아가기, 평화에 관한 단원을 설정하기

둘째, 심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평화 사랑의 마음 갖기)으로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생활 속의 습관 만들기

셋째, 평화 기술(갈등 해결 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 해결 방법,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실천 및 체험학습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에 관한 지식-평화문제 인식

① 평화의 진정한 가치인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해 다루어야 할 평화교육에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인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지향과 특징들 중에서 특히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함을 통해 세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화의 현실 속에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선 교육을 통해 어떻게 다양성, 차이(다름)를 관용하여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미국의 유치원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fair’ 와 ‘share’ 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를 훈련시키는 노력들이 내 가족과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가치는 진정한 ‘정의’와 ‘나눔’의 평화적 가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존을 위해서는 나누는 수밖에 없다. 나누지 않는 곳에 정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국경 민족을 떠나 넘치는 곳의 부유함을 지독한 결핍을 겪는 곳에 나누어주며 공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러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서의 평화능력 향상은 곧 통일능력의 향상과 다를 바 없다.¹⁰⁷⁾ 통일능력을 형성하는 교육은 북한과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능력, 관용과 화해능력, 평화적 감수성과 비판의식, 비폭력적 갈등해결능력, 민주적이고 상호 소통적인 대화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통일교육이 인류적 삶의 비평화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한반도의 특수한 삶의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웃과 인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시대의 시민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삶의 평화를 위한 통일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교육적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북한과의 차이를 퀴즈나 게임 등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공동체 의식 함양은 공동협력을 요하는 놀이를 통하여 훈련하고 있다. 성인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북한과의 차이를 체제와 정책의 ‘차이’에서 접근하되 지식전달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같은 공간에서 반목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북한은 남한과 다르다. 그러나 같은 점을 발견하고 극대화시켜서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자’라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화교육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에 어깨동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매우 적당하다고 보겠다. <표-17>더불어 살아가기 참조

107) 정용민(2001),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p.8.

<표-17>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1-더불어 살아가기

프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1 <더불어 살아가기>
교육목적	<p>1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 다양한 삶과 생활방식, 가치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색이나 문화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배운다. <p>2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의 문화·사회모습을 살펴보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실습지를 통해 통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해 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3.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북한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p>1단계 (3-4학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션으로 속담 알아맞추기) · 활동 2: 시원하게 변명해 봐요! (노래로 편지 쓰기, 우리 반 우리아이들) · 활동 3: 우리 함께 살아요. <p>1단계 (5-6학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인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인종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둠별로 토의) · 활동 2: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해요. (살꽃 이야기와 검둥이 성적표를 모둠 별로 읽고, 그림으로 표현) · 활동 3: 활동들에 대한 느낌 나누기, 노래발표 등.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북한 사회를 이해해요. · 활동 2: 통일된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봐요. · 활동 3: 북한의 언어를 배워요. <p>참조 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의 평화: 너와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언론, 생명존중 2. 남북의 평화: 전쟁과 평화, 북한사회·문화 이해하기 1·2, 해외동포이야기 3.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은 하나, 지구촌의 언어, 지구촌의 종교, 나눔 4. 생태의 평화: 우리는 함께 살아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는 왜 아플까요?
교육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퀴즈
기대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② 평화교육 단원을 설정하여 교육하기

교육과정에 평화교육 관련 단원을 설정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평화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평화교육 단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가. 자기성찰을 위한 평화교육 단위

이 단위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하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현상을 이해하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장애우 차별문제, 외국인 노동자 차별문제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다르며, 이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나. 분단과 갈등구조 이해를 위한 평화교육 단위에서는 분단의 아픔과 불편함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일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다.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한 평화교육 단위에서는 북한의 삶을 접하면서 북한에 대한 친숙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잘 알아야 호감도 생기고 애착도 생긴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연환경, 문화재, 어린이들의 생활, 민속놀이, 서로 쓰는 말씨의 비교, 북한동화 읽기 등 다양한 접근으로 북한의 삶을 조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평화적 통합의 비전을 찾는 평화교육 단위에서는 생활 속의 실천이란 점에 초점을 두고, 남북이 하나 되어 북한어린이들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2) 심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평화 사랑의 마음 갖기

①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 내용¹⁰⁸⁾이 평화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과정은 남북 주민(민족)이 만남의 과정이며, 통일은 곧 만남의 일상화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은 ‘우리’(동질성)이면서도 이미 ‘남’(다양성)이 되어버린 타자와의 만남이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우리’(정체성)의 평화적 탄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그런 만남은 우리이면서도 교류하지 못하며, 같이

108) 상계서, pp.88-90.

살면서도 소통하지 못하고, 깊고 두텁게 조장되고 배타적으로 타자화 되어 버린 우리의 이웃, 민족을 되찾아내고, 만남으로써 '우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는 '낮선 사람들 - 우리이면서도 남이 되어버린 우리 - 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¹⁰⁹⁾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다.

평화는 관계의 산물이다. 평화는 그 자체의 모순이 지양되는 결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갈등과 대립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에서의 관계 발전이 바로 평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도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평화교육은 현장에서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의식의 실천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출발점에서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만남'과 '소통'을 통한 평화교육은 반드시 누군가와의 접촉과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삶의 제 관계를 스스로 해석하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평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평화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초등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한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사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교육 쪽으로 관심을 돌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사이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표-18>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내용 참조

109) 김용주 외 역(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116.

<표-18>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2-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프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2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존>
교육목적	1.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에 대해 2. 비폭력, 화해, 통일 3.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4.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교육내용	1. 내용 구성 : 1단계 :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히는 과정 2단계 : 다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 2. 특징 :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주요하게 훈련되는 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국제사회이해, 환경이라는 보편적 평화와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평화개념이 그것이다. 보편적 평화와 특수한 한국의 상황을 담은 평화개념에는 다름과 차이,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퀴즈
기대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② 생활 속의 습관 만들기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은 생활 속에 평화에 대한 가치가 습관화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인간 공동체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니므로 서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게 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교육의 첫 출발점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의 평화, 즉 너와 나, 가족, 학교, 이웃, 사회, 언론, 생명 존중에까지 이를 수 있으면 최상일 것이다. <표-19>, <표-20> 교실에서의 갈등 해결교육 참조

(3) 평화 기술(갈등 해결 능력)

① 갈등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초등학교 평화교육내용으로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갈등해결이란 갈등을 객관적·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비폭력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능력을 말하며, 적절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assertiveness)과 협동적 문제해결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갈등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평화교육은 갈등분쟁을 예방(prevention)한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난 후 이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보다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집중적 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케빈 클레멘츠(Kevin Clements)는 “예방이 치료/치유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예방으로서의 평화교육의 내용에는 분노감, 좌절, 공격성 등의 감정을 줄이기 등의 몇 가지 훈련이 포함된다.

<표-19>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3-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3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육목적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내용	<p>1. 내용 구성 :</p> <p>(1) 협동 :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배운다.</p> <p>(2) 의사소통 : 학생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예민하게 듣는다.</p> <p>(3) 관용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편견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배운다.</p> <p>(4) 긍정적인 감정 표현 : 학생들은 느낌, 특히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배운다.</p> <p>(5) 갈등해결 : 학생들은 갈등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돌보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p> <p>2. 특징 :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이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면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마음도 키워진다.</p>
교육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모둠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기대효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평화로운 교실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②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내용이 평화교육내용에 삽입되어야 한다. 평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실문제에서부터 평화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협동학습과 체험학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평화부재의 현실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과 그 주변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심리적 벽을 허물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더불어 사회적 행위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교육 원칙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은 교실과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이 평화를 우선하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내부의 폭력적 움직임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당국의 폭력 지향적 통일정책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평화교육과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의 흐름은 탈냉전 이후에 나타나는 평화의 문제, 즉 지역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의 평화적 건설적 해소책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냉전이후의 무력분쟁과 갈등의 양상이 종족·종교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가치관, 의식구조, 관습, 문화적인 차이가 과거의 잠재적, 물리적, 구조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 유발하는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폭력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 특히 교실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갈등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학교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또한 ‘또래중재’(Peer Mediation) 프로그램¹¹⁰⁾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의 학교에서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제해결전략과 의사결정기법을 더 잘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생활상의 기술들로서, 그 기술들이란 개인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학교 안에서 학습에 보다 협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더 잘 하며, 덜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직원과 부모들이 협조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도움을 주므로 학교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

<표-20>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4-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4 <교실에서의 갈등해결 교육>
교육 목적	갈등으로 가득 찬 교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 내용	<p>1. 내용 구성 :</p> <p>(1) 문화이해지를 적용한 북한이해 교육: 남북한의 서로 다른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문화학습지 형태로 교육, 토론한다.</p> <p>(2)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 북한 사진, 영상, 만화 보기 -북한에 대한 막연한 이질감 해소, 함께 살수 있다는 자신감 확보</p> <p>(3) 평화, 화해 체험활동: 평화체험 놀이, 통일노래 부르기, 통일걸개 만들기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적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화해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한다.</p> <p>(4) 공동체 의식 함양 : 도미노게임·물놀이-모듬 활동을 통한 타인 배려와 협력을 배운다.</p> <p>(5) 아동들의 주도적 참여활동: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p> <p>2. 특징 :</p>
교육 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모듬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퀴즈
기대 효과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능력 고양

110) 강영진(1999), “또래 중재인으로 왕따 없앤다”, 『신동아』 3월호, p.291.

<표-21>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5-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평화교육 프로그램 5 <평화 만들기>
교육목적	초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평화적 가치지향성을 기초로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¹¹¹⁾ 따라서 자아존중과 타인존중, 차이와 다름의 존중, 공감과 나눔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적 인간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구성 :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는, -생활 속의 갈등(왜 다투까요? -교실 안, 교실 밖에서 느끼는 자신과 주변의 갈등 경험을 알아보고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쟁·분쟁이 주는 아픔(한국전쟁이 준 아픔-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준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분쟁 지역의 또래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소중함을 깨닫기) -난민 어린이의 슬픔(세계 분쟁 지역과 분쟁과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지역에서의 아동들이 겪는 아픔들을 함께 느껴보기) -평화 만들기(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학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
교육방법	대집단 토의학습, 조사학습, 모듈 별 토의와 발표, 협력학습
기대효과	자아존중과 타인존중, 차이와 다름의 존중, 공감과 나눔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적 인간을 기른다.

3) 실천 및 체험학습

실천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평화교육의 제 범주 중에 세 번째인 평화 기술, 즉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평생학습활동, 평화, 화해 체험 활동,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평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초·중등 교육과정」, 사람생각. pp. 33-34.

(1)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의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

평화의 본질은 위협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행복한 삶의 향유에 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은 같이 간다.¹¹²⁾ 이러한 평화개념이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 구상에 함의되어 있다.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평화사랑 운동을 펼치는 것은 중요하다. 평화 캠페인, 4·3 유적지 순례, 북한동포 돕기, 오름 기행, 환경체험과 같은 것은 평화사랑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¹¹³⁾ 언론 방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평화사랑 캠페인과 평화사랑 시리즈물을 기획하여 방송하는 것은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도 평화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갖기, 통일교육,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평화교육의 실천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평화사랑의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미 제주에서는 4·3 평화공원이 조성 중에 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화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역할극, 모의회의, 평화시위, 포럼, 자유토론, 노래창작, 포스터 제작, 평화의 나무 만들기, 명상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에 직접 적용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평화 기술, 즉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멀고도 험한 여정일수도 있으나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으로써 평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112) 고성준(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환경과 제2기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4.

113) 상계서, p.6.

(2) 평생학습활동

평화교육은 모두를 평화적 식자화 하는 종합적인 평생학습활동이다.¹¹⁴⁾ 학교 교육, 지역사회, 미디어, 각종 매체 등에서 모두 평화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과 중심, 교사중심, 교실활동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인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에게 교과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교사 재량에 따라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반평화적이고 폭력적인 학교와 사회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경험시켜줄 것인지, 축적된 경험이나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평생학습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화교육이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학교와 사회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평화교육방법은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접목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¹⁵⁾ 이는 앞의 ‘평화의 섬 제주’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평화교육에서는 ‘전문가’가 따로 없다. 평화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그대로 ‘전문가’이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삶이 실려야 하는 그런 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삶의 내용은 나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미래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¹⁶⁾

평화교육을 실천할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안을 짜며 교육이론가나 전문가들은 이 교육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고병현 교수는 말했다. 따라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어떻게 평화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평생학습활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14) 강순원(2003), 전계서, p.139.

115) 고병현(2003), 전계서, p.152.

116) 상계서, p.152.

(3) 평화, 화해 체험 활동

초등학교에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실천적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화해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평화교육 내용에 담아 교육해야 한다. 우리에게 통일에 앞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평화정착 노력이 단지 남북 간의 전쟁을 막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 모두에게 번영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모두가 잘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학습 내용으로는,

① 가상 생활문화 체험학습

북한의 같은 또래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읽기 자료나 일기, 체험담(가정생활, 학교생활, 방과 후 생활, 소년단활동, 놀이문화)등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과 관련,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토의하도록 한다.

②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언론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북한 어린이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한 소감을 적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이다.¹¹⁷⁾ 또 알뜰 시장을 열거나 통일 모금함을 만들거나 용돈을 절약하여 성금이나 물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전달하

117) 김병택(2002), 전개서, p.13.

는 교육은 통일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줄 수 있다. 체험학습을 위해 기아체험을 하거나 북한음식을 먹는 행사에 참여하면 더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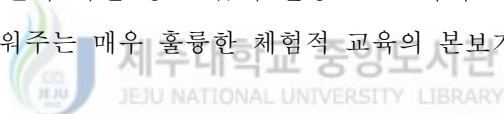
③ 통일학교

방학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학교에 참가하여 캠프 생활을 통해 통일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견학, 등산, 발표회, 촛불 행사, 모닥불 놀이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관련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④ 문화예술·스포츠관람

남북한 스포츠 교류 때 단일 팀이 경기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남북한의 문화예술 등 공연들을 직접 관람하고 체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제주도민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그 자체로서 민족과 평화에 대한 사랑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매우 훌륭한 체험적 교육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과 주변에 전달하는 방법 등 평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나는 평화능력의 기술은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 교육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 ▲ 명상 자기성찰
- ▲ 문제와 갈등의 비판의식
- ▲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 ▲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 습득
- ▲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 ▲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력 개발
- ▲ 협동과 공동의 문제해결

▲ 타인의 이야기 경청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향상은 곧

- ▲ 비폭력성
- ▲ 자아존중
- ▲ 타인과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 ▲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 ▲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기
- ▲ 열린 사고
- ▲ 나눔
- ▲ 공존의 삶
- ▲ 연대
- ▲ 평등 등의 가치지향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⑥ 통일 관련 행사 참가



6월이면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통일관련 행사를 실시하는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아동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통일글짓기대회 및 퀴즈대회 참가, 4·3 공원 및 자유회관 견학, 통일 말하기 대회에 흥미를 갖고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⑦ 인터넷 활용 교육

아동들에게 북한 및 통일 그리고 평화에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직접 인터넷 의 무궁무진한 바다를 향해하게 하여 그 속에서 토론할 만한 이슈를 찾아내어 일정한 형태를 갖춘 토론 수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¹¹⁸⁾

118) 한금옥(2003),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역동적 교수·학습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36.

(4)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통일문제를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인식하려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진경 교수의 『문화이해지』¹¹⁹⁾가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적절하고 무식하고 무례하며 틀린 행동으로 보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문화 간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설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의 행동의 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를 활용¹²⁰⁾하는 북한이해 교육에는 통일교육의 관심을 이념과 정치, 경제, 군사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전망도 제시되어야 한다. 심리적 화합의 시도는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줄 아는 관용의 태도와 다른 가치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방성을 견지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해준다. 이러한 열린 태도와 수용적인 사고능력은 연습과 훈련에 의해 키울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 또는 기술 중에서

119) 정진경(1999),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pp.176-184.

120) 정진경 외(2003),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우리교육, pp.7-9.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문화적 감수성이다.

북한이해교육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이해를 통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인간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과 인간애를 나눈다는 의미로서의 공감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문화이해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름’에 대한 관용의 정신과 태도를 아울러 교육하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V. 결론

최근 북핵 문제, 미·이 전쟁뿐만 아니라 제주도적 차원에서의 4·3 문제, 북핵 문제 등 시대적 상황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세계화·정보화,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시대라는 새로운 통일환경에 걸맞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도되었다. 통일교육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통일교육에의 평화교육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배경과 실천과제를 조사하였고, 현행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을 검토해 봄으로써 평화정책에 걸맞는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기존 평화교육의 사례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초등학교 평화교육에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평화교육 사례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활동을 통한 접근 방법,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접근 방법, 그리고 실천 및 체험학습으로서의 평화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화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통일정책은 분단현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해결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평화교육으로의 지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초등학교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보다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대부분 지식 중심의 내용이기보다는 가치관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다름과 차이의 이해, 다양성의 인정, 차별과 배제가 아닌 공존의 삶, 신뢰와 존중, 상호이해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를 배우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평화교육이 가치중심의 교육이니 만큼, 교육방식에 있어서 체험학습이나, 실천하는 프로그램, 즉 생활 문화 중심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과과정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 평화개념의 적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

셋째, 교사중심의 모임이 보다 활성화되어 민간단체와 학교교육과의 연계, 그리고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 교육 활동의 제반 문제는 대부분 교육과정에 기인한다.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평화교육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량시간 및 도덕 교과 시수를 조정을 통한 항구적인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함이다. 이는 단순히 체제나 제도의 일치를 넘어선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함을 뜻한다. 단순히 두 국가 사이의 체제와 제도의 '통일'이 아닌 인간 사이의 '평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가뜩이나 학생들이 통일이나 민족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교사들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혀를 내두르며 껌싸게 기피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꼭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목적에 두지 않고서라도 용기 있게 화해할 줄 아는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통일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은 과거의 반공교육식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일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과의 만남과 이해,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통일교육의 방법이 단순히 교수·학습의 기술적인 면에서 모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통일교육이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나 민족적 문제의 차원에서만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논의된다면,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주체 문제, 그리고 그들의 관계성의 문제는 간과되기 쉬워진다. 통일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통합적 관점과 접근을 통하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방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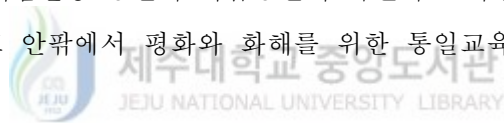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분단의 나쁜 점을 극복하는 통일이어야 하므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 번영의 시대에 걸맞게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의 평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인간중심의, 평화에 역점을 둔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지식 위주의 통일교육의 틀을 확대하여 갈등해소프로그램, 상호이해교육, 공존훈련 등의 평화교육적 방법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모색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일상생활 속의 평화’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군사주의와 고도성장을 위한 경쟁체제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와 이웃사랑, 겨레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즉, 통일의 정치적 해결 이전에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 삶을 통하여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상호존중’과 ‘평화사랑’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평화능력 향상은 곧 통일능력 향상과 다를 바 없다. 통일능력을 형성하는 교육은 북한과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능력, 관용과 화해능력,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비판의식, 비폭력적 갈등처리 능력, 민주적이고 상호소통적인 대화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실천되면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지식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와 기술, 태도에서의 통일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질 필요가 있다.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화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중심에 있고,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적인 세계 건설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실현은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직접 달성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평화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일상화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평화문화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와 학교의 환경에서 변혁적 성격의 평화교육적 통일교육 실천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개척자적인 열정이나 평화와 통일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굳건한 의지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에 시민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평화란 단순히 조화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의로운 비판의식과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정의 의식을 어린이들의 학습능력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협조에 의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 공간과 학습공간이 마련되고 다양한 통일 교육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 안팎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만길(2000),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지영사.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한울.
- 강정구(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 경실련 통일협회(1999. 11), 「새로운 세기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자료집.
- 고병헌(1999),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우리교육.
- 교육부(1997),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0), 「2000 통일교육자료CD」, 교육부.
- _____ (2001), 「사회」 교사용지도서 3학년 2학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2), 「국어」 교사용지도서 6학년 2학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2002), 「교육마당21」 통권 247호,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실.
- 김경원(1995),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김신일 외(2000),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김재복·이경환·허경철(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김진경(1989), “분단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교육」, 푸른나무.
- 데이비드 히스(1993),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고병헌 역, 서원.
- 민병천(1992), 「신통일론」, 고려원.
- 박건영(2000),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 법문사.
- 박찬석 외(2002), 「통일교육론」, 백의.
- 백영철(2000), 「21세기 남북관계론」, 법문사.
- 백학순(1997),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부산광역시교육청(2001), 「함께 하는 통일교육」, 부산인쇄정보산업조합.
- _____ (2001), 「3, 4학년용 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자료집」. 부산인쇄정보산업조합.
- _____ (2002), 「쉽게 하는 통일교육」, 부산인쇄정보산업조합.
- 사직초등학교(2002),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교수 학습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도덕·윤리 개발위원회(1992), 「윤리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심지연(2002),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립」, 돌베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1), 「평화의 문화창조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자료집」.
- _____ (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 초·중등 교육과정」, 사람생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7),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오름.
- _____ (2000), 「CCAP: 2000년도 활동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교육센터.
- 이근철, 오기성 공저(2000), 「통일교육론」 도서출판 엑스퍼트.
- 이돈희 외(1996), 「학교통일교육 자료개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 보고서.
- _____ (1996), 「학교통일교육 자료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원섭(1997), 「새로운 모색」, 서울; 한겨레신문사.
- 이삼열·강순원·한경구 외(2003),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한울.
- 이상우(1993), 「함께 사는 통일」, 나남.
- _____ (1998),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오름.
- 이상우·하영선(1992), 「현대 국제 정치학」, 나남.
- 이종석(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 정두용·신은숙·정득진(2000),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 조한혜정 외(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삼인.
- 차경수(2000),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 통일부(2000), 「북한개요 2000」, 통일교육원.
- _____ (2000), 「2001년도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
- _____ (2001),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

- _____ (2002), 「2002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아이플랜.
- _____ (2003),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교육원.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2000),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하여: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 자료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평화인권연대(2000), 「평화행진 2000 자료집」.
- _____ (2001), 「평화행진 2001 자료집」.
- 하선영 외(2002), 「21세기 평화학」, 풀빛.
- 한국통일교육연구회(2002), 초등학교 「통일」 5, 그린필드.
- _____ (2002), 초등학교 「통일」 6, 그린필드.
- 한만길(1997),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 한만길 외(1999), 「통일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병덕(1997),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엮음(2000), 「국내외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홍사단 출판부.
- _____ (2001),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홍사단 출판부.

<학위 논문>

- 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선(2002), “남북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보영(1998),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운(1989), “교육과정 개정별 교육목표와 정치적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은(2001), “통일교육의 대안적 체제로서의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화(2002), “평화 교육적 접근을 통한 초등 도덕과 통일 교육의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숙희(1999), “성인통일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박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선례(200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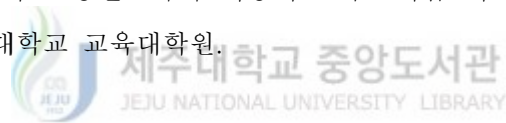
정애경(1990), “평화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프레이리 교육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윤고(2002), “통일교육 WBI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황동필(2001), “사회과 평화 및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홍종생(200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금옥(2003),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역동적 교수·학습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논문>

강석승(2001), 「대북포용정책의 특성 분석」, 통일부 정보분석소.

강영진(1999), “미국의 학교폭력·집단 괴롭힘 해결 노하우 ‘또래중재인’으로 ‘왕따’ 없앤다”, 「신동아」 3월호.

고병헌(2000),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과 평화」 1집.

_____ (1998),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 「처음처럼」, 9/10월호, 통권 제9호.

고성준(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환경과 제2기 제주 ‘평화의 섬’추진과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_____ (2003), “제주도의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의 성과와 과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주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세미나」 발표논문.

권혁범(2000), “통일교육에서 탈 분단 시민교육으로: 평화, 인권, 그리고 차이의 공

- 존”,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세미나 자료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_____(2000),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
- 김도태·이경화(1997), “통일교육 개선방향-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 6호 1권, 민족통일연구원.
- 김명희·신화식(2002), “유치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활동의 실제”, 「몬테소리 교육연구」 제 7집, 한국몬테소리교육학회.
- 김민곤(2000), “청소년, 학생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김병택(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교통일교육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 34호, 통일문제연구소.
- 김용환(1999), “관용: 바른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덕목”,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 박찬석(1998), “학교 통일 교육의 교육과정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평가 연구」 제2권 제 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진현(2001), “감상적 민족주의가 국가 안보, 평화 못 지킨다”, 「평화연구」 제10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백학순(2003), “햇볕정책 4년 평가와 과제”, 「교육학 연구」, 세종연구소.
- 신화식(2002), “유치원 교사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분석”, 「열린 유아교육연구」, 한양여자대학교.
- 오인탁(1988),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9),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유네스코포럼」 10 호.
- 윤종진(2001), “남북한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 3집, 부산대학교.
- _____(200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 도덕과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 4집, 부산대학교.
- 윤황(2003),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 방안”, 「21세기 정치학 회보」 21세기정치학회.
- 이삼열(2003), “평화와 상생을 위한 교육”,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

- 이해교육 교원연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이우영(2002), “평화번영시대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주제발표문, 통일연구원.
- 이우용(2000),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교육마당 21」, 교육부.
- 이장원, 정용민(1999), “평화교육 워크샵: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정”,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정영수(1992),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1),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2001년 통일부 용역과제」, 통일부.
- 진병석(2000), “제 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집.
- 차우규(200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제 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통일부.
- 최영표(2002),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와 발전과제”, 민주평통 초청 워크샵자료, 통일교육학회.
- _____ (2002),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민주평통 초청 워크샵자료, 주제발표문, 통일부.
- _____ (2003), “학교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교육마당21」.
- 최완규(1998),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론의 쟁점과 과제”, KRF연구결과논문, 한국학술진흥재단.
- 통일교육원(2000), 「사회통일교육발전 방안 모색: 사회통일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Abstract>

**A Study on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the Re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 Peace Education Approach in Reunification Education -

Lee, Chang-Hwa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 Seong-jun



The terror on Sep. 11th 2001 in U.S.A. restores the concern about the peace. Without peace, as we have seen North Korea's nuclear conflict, th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may be very difficult. The reunification policy o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stresses more on peace than on reunification.

Under the circumstance,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thod of reunification education. I think that the peace education approach should be used in today's reunification education. To prove this point of view, I study some practical problems in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and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having respect to the curriculum an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elementary school and case studies, I suggest some practical ideas of education as an approach of peace education. That is to say, basic direction (aims and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peace education as reunification education. Pea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ave to stress recognitive approach as well as affective approach to develop the will to practic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peace education should integrate texts, specific activities, students' their own discretionary activities, practices and experiences.

In conclusion, Re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the future depends on multiple approaches including development of more active programs.

